
第80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財務經濟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5年9月22日(金) 午後2時

場所 財務經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懸案業務報告(財務局)
 2.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行政事務調查計劃採擇의件
 4. 서울特別市金庫制度改善小委員會活動經過報告
-

審査된案件

1. 懸案業務報告(財務局) ... 2面
 2.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90面
 3. 서울特別市農水產物都賣市場管理公社行政事務調查計劃採擇의件 ... 111面
 4. 서울特別市金庫制度改善小委員會活動經過報告 ... 113面
-

(14時 03分 開議)

○委員長 文錫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0回 臨時會 第2次 財務經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1. 懸案業務報告(財務局)

○委員長 文錫珍; 議事日程에 들어가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財務局 懸案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局長 나오셔서 懸案業務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평소 존경하는 文錫珍 委員長님 그리고 財務經濟委員님 여러분, 第80回 서울 特別市議會 臨時會 會期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委員님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市長께서는 지난 9月 1日 就任辭를 통하여 목은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짜기 위해서는 可視的이고 物量的인 잣대가 價値判斷의 基準이 되는 것이 아니라 自由와 自發에 바탕을 둔 자율적인 秩序가 존중되고, 협력과 協同에 입각한 政治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칙에 따르는 것을 行政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物質보다는 人間을 중요시하고 多樣성과 多元性, 創意와 內實을 소중히 하는 價値觀을 세워 創造的인 發想으로 對處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地方化時代 서울 市政의 主人은 서울 市民이며, 市民이 市政의 중심이 되고, 市民便益이 모든 판단의 척도가 되는 市民을 위한 市政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市長님이 市政方向을 實踐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서울市 傘下 全 公職者들은 구태의연한 목은 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로 市民을 위한 奉仕行政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第80回 市議會 臨時會 財務經濟委員會에서는 우리 財務局에서 年初에 樹立 施行해 온 業務計劃 中에서 각 分野別

로 推進해 온 主要實績을 중심으로 業務報告를 드리고, 이어서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本人의 提案說明과 이미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시어 議決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市民을 위한 奉仕行政을 遂行해 나가는 데 있어서 委員님들의 많은 指導鞭撻이 있으시기를 期待하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結실의 계절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 業務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재무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

대략 業務 中에서 주요한 事項만 이렇게 報告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委員 여러분의 質疑와 執行部の 答辯 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延義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李延義 委員;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延義 委員입니다.

財務局所管 中에서 많은 委員들의 많은 質問이 있을 것으로 思料되어서, 저는 市金庫小委에 대한 몇 가지 疑問사항을 質

問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처음 業務報告 때 OCR센터를 商業銀行이 運營함으로써 인해서 서울시 業務에, 歲入이 엄청난 노하우와 寄與를 하고 있다라고 그 때 財務局長이 처음 業務報告에 報告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계속 이 OCR센터를 運營하는 商業銀行의 현재 이 業務가 서울시 歲入業務에 많은 寄與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90年 12월에 OCR센터를 設置할 때 서울시가 당초에 OCR센터를 運營하게 된 計劃書가 있을 것입니다. 이 計劃書 決裁寫本을 좀 提出해 주시고, 또 商業銀行이 90年 12월에 OCR센터를 設置할 때의 計劃書を 아마 서울시에 동시에 提出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商業銀行이 提出한 이 計劃書を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OCR센터가 단순히 分類作業에 불과한데, 서울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75년부터 電算센터를 運營하고 있었는데 이 OCR센터가 노하우 때문에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가 電算센터를 運營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자기들이 手作業을 해야 되는 불편을 人力을 줄이기 위해서 OCR센터를 運營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要求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불편했기 때문에, 또는 서울시가 電算센터를 運營하니까 設置를 불가분하게 할 수 뿐이 없었던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個人業體가 OCR센터를 運營함으로써 인해서 어떠한 서울시의 情報라든가 또는 個人 身上的 情報 漏出 危險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EDI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富川 稅務非理事件 이후에 靑瓦臺에서 SOC, 그러니까 國家競爭力委員會에서 稅務非理에 대한 防止策으로 아마 EDI를 運營하도록 國稅廳에다 얘기했고, 地方으로서 서울市에 示範적으로 運營하라고 하는 決定에 따라서 아마 準備하고 있는 것인데, 그 準備가 어느 정도 되어서 그 運營이 언제쯤 가능한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報告에 보니까 電算裝備 R/S 및 컨트롤러 機械가 2臺로 되어 있는데, 裝備의 臺當 價格이 얼마인지하며, 壽命, 平均壽命이 제가 알기로 5年으로 알고 있는데, 이 壽命이 지금 언제 購入해서 현재 壽命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錫珍; 財務局長님 答辯해 주십시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OCR 商業銀行이 運營하는데 노하우와 서울市에 寄與한 부분, 또 현재도 歲入業務에 상당히 寄與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첫 번째 質問이셨는데, OCR센터가 아까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分類作業과 行政의 業務를 지금 遂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도 그 業務를 만약에 저쪽이 안하더라도 우리 行政이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이 電算化는 현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OCR 決裁方針의 寫本과 商業銀行 會計書提出은 우리가 確認을 해서 提出을 하도록, 두 번째 그것은 그렇게 하고, 이것이 단순한 分類作業에 불과하고, 서울市가 그것을 要求를 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 本人의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한 質問이 되겠습니다 .

이것은 그 필요성이 서울市도 필요했고 그쪽도 필요를 같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特定機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電算化 過程에서 다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그렇게 理解가 됩니다.

OCR센터 運營으로 個人業體가 運營하므로 個人 身上의 情報 漏出 與否에 대해서는 稅額이, 누구의 稅額이 얼마나 그러는 정도는 나갈 것으로 저는……. 그것은 되는데 그 稅額 자체만으로 특수한 不利益 情報가 되거나 그것은 큰 問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EDI事業 이 準備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언제쯤 가능한지 이런 問題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國稅廳이 主管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基本問題를 對象 事業所하고 해서 國稅廳이 지금 主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參與해서 基本計劃을 우리도 같이 說明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下半期부터는 이것을 推進할 計劃으로 현재 政府도 推進을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電算裝備 R/S 臺當 價格과 壽命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끝나는지? 이 부분은 調査를 해서 報告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李延義 委員; 補充質問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마저 해 주십시오.

○李延義 委員; 그럼 서울시가 필요로 해서 했다고 한다면, 國家機關의 이런 機器는, 특히 公共機關과 銀行業務는 남아서도 안 되고 줄어서도 안 되고, 또 서울시가 어느 個人機關에 특혜를 줘서도 안 되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필요로 한 裝備가, 특히 서울시에

이미 商業銀行보다 먼저 電算센터가 있었고, 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管理를 해야 될 이 業務를 商業銀行으로 하여금 負擔을 시켜서 해야만 되는지?

당연히 서울市가 豫算과 裝備를 들여서 管理해야 되고, 또 지금 여기 보면 裝備와 매년 12億 3,000萬원 정도의 豫算을 商業銀行에서 執行했다고 되는데, 商業銀行에 그것으로 인해서 預金利率이라든가 또는 그보다 더한 特혜를 줄 수 뿐이 없었던 狀況이 아닌 것인지? 論理로 편다면, 지금 여기 國家가 預金を 金庫預金 利率에 보면 높은 金利로 適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適正金利만을 維持할 수 뿐이 없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한 하나의 金利政策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될 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동안에 높은 金利로 適用해서 해 볼 때 5年동안 수천억의 利子損失을 봤는데, 결국 商業銀行에 이 OCR센터를 줌으로 인해서 어떠한 노하우를 빌미로 한 하나의 特혜가 아니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答변을……. 서울市가 필요로 해서 했다면 당연히 서울市가 이 OCR센터를 運營하고 管理해야 된다는 主張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答辯을 좀 해주시고, 96年度 四半期에, 내년 下半期에 이 EDI센터가 運營된다고 한다면 OCR센터가 無用之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때 가서도 이 OCR센터를 그대로 運營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에 OCR센터에 대한 代案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電子計算所에서, 서울의 電子計算所에서 告知書 發給業務, 그 다음에 단지 分類만 해서 왔을 때에 MDO 와 디스크를 받아서 消印하고 滯納告知書を 作成하고, 滯納帳簿를 만들어서 각 區에 配定하고 하는 問題는 전부 電子計算

所에서 다 한다고 볼 때는, 그렇다고 볼 때는 오히려 OCR센터가 商業銀行에 있음으로 인해서 괜히 왔다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 OCR센터를 지금이라도 引受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 우리 電子計算所에 設立을 해서 필요하다면 계속 할 意思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돈을 받으면 얼마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뭐하고 같이 計算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수납필 통지서, 그것이 證明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를 받았다 하는 集計를 내자면, 商業銀行이 반드시 集計를 하기 위해서 商業銀行이 그것을 어떤……. 받은 銀行이 전부 集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集計가 안 되고 우리한테 왔을 때 現金은 얼마가 들어오고 이것이 틀렸을 때 누가 責任을 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받은 사람이 내가 얼마를 받았습니까 하는 證明書로 과거에 그것을 手作業으로 전부 集計를 해서, 또 그것을 集計를 해서 區廳別로 전부 歲入機關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稅目 얼마, 얼마 하는 것을 전부 다 나누어 주고, 그 돈도 그 機關으로 전부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集計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商業銀行이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누가 필요해서 했느냐 하면, 그런 業務를 해 왔는데, 우리도 그것을 電算化로 할 필요도 있었고, 우리도 稅務業務를 電算化를 할 필요도 있었고 商業銀行 쪽도 手作業으로 하는 것을 電算化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引受를 해서 運營을 하더라도 商業銀行이 基本的으로 얼마를 내가 받아서 어떻게 나누어 주겠다 하는 부분은, 그러면 그 나누어 주는 것도 전부 우리가 할 것이냐, 돈은 그 쪽

에다 넣어 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實益 부분은 한 번 따져봐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가져온다고 그러면 商業銀行은 그것을 받는대로 計算도 안하고 우리한테 넘겨줄 것이냐, 또 計算을 해야 된다면 바고 이런 OCR센터에서 計算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檢討가 되어야 되겠고, 또 EDI센터가 되면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래서 그 EDI센터 부분은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우리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시 檢討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EDI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全 稅目을 EDI로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없는 사람이 술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일시에 다 컴퓨터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EDI事業이 되더라도 이 EDI事業을 利用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OCR이 불편해서 우리가 定額制 告知書를 지금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登錄稅는 5,000원짜리 이런 것이 숫자가 엄청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현재 OMR이나 OCR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定額制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告知書 登錄體系나 이런 것을 전체 一元化를 할 수 없는 그런 問題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현재 段階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EDI 그부분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電算體系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電子計算所에서 一括해서 收納하는 부분을 手記 告知書 한 부분은 또 거기서 收納이 안 되어서 區廳에서 二重 收納을 지금 하고 있는 狀態입니다. 그래서 이런 電算收納시스템을 全般的으

로 지금 再檢討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되어야 이 부분하고 같이 答辯을 드리고, 그 計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李延義 委員; 지금 局長님 얘기대로 한다면 OCR은 商業銀行이 手作業으로 했던 자기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할 수 뿐이 없었다. 아울러서 告知書 發給 자체가 우리 電算센터에서 전부 電算에 의해서 告知書가 發給되었기 때문에 商業銀行이 당연히 電算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手作業을 하는 번거로움을 자기들이 덜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할 수 뿐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OCR센터로 인해서 商業銀行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市金庫를 당연히 계속해서 運營해야 된다는 論理는 지금 맞지 않는 다라고 보고 本委員이 결론 짓는데, 거기에 局長님 同意하십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그것은 OCR 때문에 商業銀行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市金庫를 指定하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그 費用을, 예를 들면 手作業으로 하면 OCR센터보다 더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OCR 때문에 商業銀行을 指定을 했다고 하는 그 論理는, 뭐 꼭 그것 때문에 商業銀行을 指定을 하고 그것이 없으면 그러면 指定을 안해도 되느냐? 지금 金庫는 어딘가 하나 指定을 해서 運營을 하도록 지금 法制化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金庫 運營이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OCR센터 때문이라는 그런 前提는 꼭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李延義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좀 묻겠습니다.

會計課에서 銀行聯合會를 통해서 현재 最高金利를 몇 % 줄

수 있느냐고 調査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최근에?

○財務局長 權五虎; 最高金利가 아니고 一般的으로 각 銀行에서 주고 있는 金利 수준을 그 쪽에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李延義 委員; 최근에 받았습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네.

○李延義 委員; 그 內譯을 좀 저희들에게 提出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4年度 1月 1일부터 95年度 8月 31日 현재까지 定期預金을 1個月, 3個月, 6個月, 1年짜리를 했다가 解約한 內譯, 解約한 事由, 당초 金利, 또 解約에 따르는 適用金利 및 金額 이것을 書面으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書面으로 提出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른 委員님들 質疑하시기 전에 아까 電算裝備 壽命問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단순한 問題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事前에 파악이 됐으면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稅法上 耐用年數가 보통 한 5年, 더군다나 電算裝備는 그것보다 짧으면 짧지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李延義 委員께서 質疑하신 內容은 이렇게 電算裝備가 91年度에 導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다 老朽化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觀點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91年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또한 改替가 됐었는지 이런 것도 함께 報告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電算裝備 壽命에 대한 報告를 하실 때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委員長 文錫珍; 다른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財務局 稅外收入 項目에 보면, 오늘 報告한 內容을 보면 稅外收入에 利子收入으로 7月末 현재 264億원

을 豫算으로 策定하고, 286億원을 賦課해서 모두 徵收했다고 報告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市가 우리 市金庫制度改善 小委員會 委員들에게 提出한 公金性 預金 利子收入額에는 95年度 7月末 현재 預入金이 1兆 7,653億원에 利率이 6.8%를 平均 適用해서 利子收入이 696億원이라고 報告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7월까지 利子收入에 있어서 그 差額이 410億원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서울市가 오늘 報告가 稅外收入 資料에는 아까 말한 286億원이고, 서울市에서 市金庫制度改善 小委員會에 報告한 內容에 의하면 696億원이라고 7月末 현재 報告를 하고 있어서 이 差額이 400億원 이상이나 나고 있는데, 그러면 410億원이 어디고 갓습니까? 答辯 바랍니다.

○委員長 文錫珍; 特別會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梁敬淑 委員; 特別會計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稅外收入에도 特別會計 포함한다…….

○委員長 文錫珍; 아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一般會計 歲入만 지금 해 놓아서, 稅外收入에.

그래서 저희가 統計資料를 조금 더 보면서 그것은 얘기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特別會計를 除外하고서 一般會計 收入이 맞는지 確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提出된 資料를…….

○財務局長 權五虎; 네, 이것은 지금 一般會計 利子收入만 거기에 資料에…….

○梁敬淑 委員; 그럼 特別會計 收入은 왜 여기에다 報告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그러니까 이 特別會計 管理 자체를 우리 財務局에서 지금 안하기 때문에 여기 報告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梁敬淑 委員; 그렇다면 왜 公金性 預金 利子收入額의 전체는 制度改善小委員會에다 特別會計를 포함해서 報告했습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여기 우리 會計課長한테 좀 內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制度改善小委에는 왜 特別會計를 포함해서 利子收入額을 報告했고, 財務經濟常任委에는 왜 一般會計만 報告를 하고 있습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알겠습니다.

會計課에서 管理하는 것은 一般會計하고 特別會計 10個를 다 管理합니다, 資金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오늘 報告드린 것은 우리 稅務指導課에서, 歲入을 管理하는 課가 稅務指導課인데 稅務指導課에서는 一般會計만 歲入 管理를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내놓은 것은 그것에 따른 一般會計 利子만 報告가 되어 있고,

저희 會計課에서는 一般會計든 特別會計든 모든 것을 總括해서 다 資金으로 해서 管理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利子は……. 먼저 우리가 報告드린 것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 합해서이고, 여기 오늘 稅務指導課에서 資料를 한 이 資料에는 一般會計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梁敬淑 委員; 그런데 통상적으로 報告를 하면 一般會計와 特別會計를 收入을 報告할 때는, 歲出이나 歲入을 報告할 때는 다 報告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財務局에서 그런 것을 당연히 報告해야 되는데, 지금 市金庫에 대한 부분이 全國的인 爭點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懸案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 一般會計만 報告를 합니까, 여기에다?

○財務局長 權五虎; 이렇게 理解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 財務局所管 業務報告를 지금 드리고 있고, 앞에 그 나온 것은 우리 市 전체이고, 지금 여기 財務局所管 業務를 報告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管理하는 부분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對外的으로 市 전체 것을 業務報告를 할 때는, 서울 特別市 그리고 나갈 때는 그것이 다 들어오는데 우리 財務局所管 業務만 할 때는 그것이 縮小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은 資料…….

○梁敬淑 委員; 特別會計 報告는 그러면 常任委…….

○財務局長 權五虎; 예를 들어서 住宅局일 경우에는 住宅局에 가지고 있는 特別會計에 대해서 또 利子 報告라든지 자기가 管理하는 부분 報告를 하고, 保社局이면 또 保社局하고 그런 쪽이…….

○委員長 文錫珍; 오늘 저희들에게 報告하실 때 懸案業務 報告事項 中에 가장 중요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事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市金庫 運營과 關係해서 財務局에서 어떻게 市金庫를 運營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오늘 중요하게 報告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常任委에서 委員들은 거기에 동시에 초점을 맞추고 報告를 듣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會計는 住宅局이다 내지는 이 會計는 上水道事業本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事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總括을 해서 과연 市金庫 運營이 小委에서 活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우리 常任委에서 論議될 때 適正한지를 먼저 財務局에 報告 機會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오늘 懸案 業務報告 時間에 듣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것은 우선 基本的으로 商業銀行 市金庫만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市金庫에 資金을 支出하도록 命을 내리는 會計課에서 어떠한 式으로 資金管理를 하는지에 대한 플로 차트式으로 說明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事項들이 오늘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期待를 했는데, 歲出業務 해서 支出業務, 資金管理 해서 아주 평이한 內容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內容, 또 듣고자 하는 內容은 財務局에서 資金을 市金庫쪽에 運用할 때에 과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運營하는지 그 過程을 좀 說明을 듣기를 바랐는데, 오늘 전혀 報告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전체 委員들이 생각하는 바가 단순히 財務局에서 管理하는 特別會計만 듣자라든지 아니면 一般會計만 듣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초점을 같이 맞추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盧載東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盧載東 委員;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는 市金庫 制度改善에 관한 問題를 다루기 위한 小委員會를 構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全般的으로 무슨 先入見을 가지고 市金庫 運營에 대단히 잘못이 있다고 豫斷을 해서가 아니고, 이와 같은 市金庫가 근 한 80年, 근 1世紀 가까이 독점적으로 運營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弊端은 없느냐? 그리고 역시 金融自律化나 이런 것 때문에 이와 같은 問題가 좀 폭 넓게 論議가 되어야 하고,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그러면 是正을 勸告하는 方向으로 저희들이 檢討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次 會議를 했습니다만 財務

局 會計課에서 나오는 資料나 또 商業銀行에서 나오는 資料들이 상당히 속도가 늦고, 會議 당일 그저 會議開始 時間에 資料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小委員會 會議를 능률적으로, 또 그 資料를 예의 면밀히 檢討할 수 있는 時間的인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지금 높습니다. 높고, 그래서 차제에, 어제도 우리가 小委員會를 하면서 資料를 일부 받아 봤는데, 틀림없이 91年度, 92年度부터 즉 시작해서 95年度까지 會計課에 보면 分期別로 月別 資金執行計劃이 나와 있습니다. 計劃만 나와 있고, 資金執行實績表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會計課에서는 資金執行計劃書에 상응하는 執行實績內譯表도 같이 아울러서 꼭 提出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알았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勝建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그 事項은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릴었습니다만 우리 分期別 支出計劃하고 支出內譯이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實務線에서 매월 그것을 對照를 해서 하고 있지를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事項을 전부 다시 과거에 支出한 事項을 가지고 전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좀 時間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까지 提出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盧載東 委員; 제가 잠깐…….

○委員長 文錫珍; 追加質疑하십시오.

○盧載東 委員; 왜냐하면 그것이 전혀 우리가 理解가 안 되는 것이, 조그마한 會社의 경우에도 資金運用計劃, 그 다음에 執行實績 이래서 그것을 分析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막대한 市

金庫를 運營을 하면서 資金實績, 執行實績에 대한 集計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러는 것은 도무지 理解가 안 된다고요, 도무지 理解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얘기가 다른 方向으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 방대한 서울시金庫를 管掌하고 있는 財務局에서는 적어도 앞으로 會計課는 통상적으로 보면 매뉴얼로 하든지 아니면 電算을 하든지 순수한 經理業務, 부킹 業務를 專擔을 해서 決算을 하고 貸借對照表를 作成하고 하는 데다가 力點을 두고, 적어도 資金課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이낸싱을 하고, 市金庫를 어떻게 運營을 해서 그것이 반드시 利子收入을 얼마나 높이는 것이 市 運營의 중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赤字 解消策의 하나로써 고려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經營마인드를 導入을 해서 財務局 內에 資金運用課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制度的으로 檢討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線까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手作業을 하든 아니면 追跡을 해서 電算化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빠른 時日 內에 저희들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市金庫運營小委員會가 저희들도 사실은 뭔가 잘잘못을 꼭 따지는 것보다는 改善할 수 있는 方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改善하는 것이 執行部나 우리 市議會에서 해야 될 事項인가를 같이 염려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28日까지 臨時會가 끝나고 나면 또 10月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時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促求를 해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좀 期間을 短縮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臨時會가 閉會되기 전에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促求를 합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그래서 지금 盧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勤務를 안했다고 그래서 責任 回避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 金庫業務를 管掌을 하면서 우리 委員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利子를 몇 % 더 올리겠다는 측면은 基本 우리가 받는 利子 이외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신경을 못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認定을 하면서, 그 制度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本會議에서 答辯을 드릴 때 專門職員을 한 사람 確保해서 하겠다, 아까 課 정도는 안되고, 이것이 全般的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專門家가 없어서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答辯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代案을 충분히 마련할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이 金庫問題가 議會하고 確定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제가 電算問題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電算問題도 같이 檢討를 해서 우선 이 問題는 저도 분명히 이런 狀態로는 안 되겠다 하는 問題意識을 가지고 檢討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勝建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勝建 委員; 제가 市金庫小委에 속해 있지도 않고, 뭐 사실 여기 專門的으로 하시는 委員님에 비해서 專門性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단순히 서울市만의 問題가 아니고 거의 모든 自治團體, 그리고 지금 서울의 각 自治區들에서도 지금 이 問題가 굉장히 커져 있는데, 하나 좀 유감스럽다고 할까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局長이하 公務員들의 사정을 나름대로 알 수 있는 그런 學問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公務員들이 어떤 생

각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것을 비교적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同僚委員님들이 계속指摘하시지만 資料問題라든지, 어제 저희가 나가면서 私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財務局은 왜 꼭 전날, 어제 企劃管理室報告 끝난 다음에 資料가 와서, 저희가 그러면 企劃管理室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가서 저녁 때 씻고 準備해서 오늘 보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問題, 조금은 時間을 저희한테 더 주셔서 이것을 지금 趙淳 市長님 이하 거의 모든 團體長들이 이제 公開行政, 透明行政하겠다 그러는데, 市議員들 그리고 常任委員의 財務經濟委員들한테 먼저 알려주는 것이, 설사 이렇게 완벽한 報告書 內容이 아니더라도 대강 이러이러한 樣式으로 대강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3·4日 前 정도, 그러니까 보통 本會議가 決定되는 것이 한 열흘 정도 전에 臨時會 決定이나 이런 것이 決定되는데, 그러면 그 때부터 準備하셔서 한 3·4日 정도 前에 주시면 그렇게 큰 갈등 問題가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基本的으로.

그리고 아까 저희 委員長께서도指摘을 하셨지만 지금 분명히 尖銳의 關心事가 市金庫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비록 財務局 事項에 대해서만 報告하는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이번 會期에 있어서 만큼은, 그리고 오늘 會議에 있어서 만큼은 분명히 委員들과 그리고 市民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에 맞추어서 報告書가 탄력적으로 作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準備를 하셔서, 이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괜한 오해를 받습니다. 마치 서울市가 議員들이나 市民들한테 뭔가 감추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어느 特定部署를 봐주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오해를 굳이 받을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벅차지만 時間을 좀 저희한테 여유를 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局長께서 말씀하실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저희 先輩委員인 李延義 委員님께서 물어보신 이것이 商業銀行이 필요해서 한 것이냐, 市가 필요해서 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할 때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 意見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意見이라는 것이 자꾸 自然人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財務局長으로서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이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오늘은 公席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개인 意見을 말씀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財務局長으로서 또는 會計課長이면 會計課長이라는 자기 職責에 맞는 答辯을 해 주셔야지, 혹시 이것이 지금 速記錄에 다 남아 있는데 나중에 어떤 問題가 發生했을 때 이것은 제가 財務局長으로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항상 모든 것은, 여기서 答辯하시는 것들은 항상 公人の 立場에서, 財務局長의 立場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商業銀行에 대해서만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93年 1月 1일부터 95年 12月 31일까지 契約이 되어 있고, 아마 이런 것으로 유추된다면 96年 1月 1일부터 98年 12月 31일까지 3年 契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3年 契約으로 再契約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小委가 活動을 열심히들 하시고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을 對備해서 小委가, 저희가 열심히 했음에

도 불구하고 어떤 決定을 내리기에 時間적으로 너무 制約이 있다, 이런 狀況이 發生했을 때 今年末까지 해서 내년 1月 1日부터 3年 契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限定的으로, 限時的으로 期間을 짧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公聽會든지 모든 것의 點檢이 끝날 때까지, 과연 市金庫를 그리고 商業銀行에 存置해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이 問題가 解決날 때까지 限時的으로 契約을 短縮할 수 있는 方法이 있는지? 또 方法이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現 時點에서 自治區에서, 어느 特定 自治區에서 商業銀行하고 契約을 못하겠다, 어제 25個 區廳長協議會에서 銅雀區廳長이 그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한일은행이 1.5%를 더 주겠다, 현재 去來銀行보다 더 주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렇다면 똑같은 狀況이라면 나는 한일은행에 하겠다 하는 얘기를 非公式的인 자리, 區廳長協議會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서울市가 商業銀行을 固守하고 自治區가 다른 市中銀行으로 바뀌는 경우에 과연 이런 問題들에 있어서 行政上 혼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問題에 대해서 準備하고 계신지? 이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제 간단한 생각으로는 商業銀行을 비교적 固守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商業銀行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지난 80餘 年間 해 왔기 때문에 商業銀行이 하게 되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이 市中銀行을 바꾸었을 때에 發生할 수 있는 에러나 試行錯誤들을 겪지 않을 수 있다하는 長點이 있다는 것을 저도 분명히 認定을 합니다. 그래서 그 長點하고, 그 다음에 몇몇 우리 同僚委員께서 指摘하듯이 지금 우리가 市長님 이하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競爭力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아주 쉬운 얘기로 利子를 더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豫算을 더 確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는 이 두 가지 意見이 對立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公開的으로 단순히 재무경제……. 지금 저희가 小委에서 나중에 提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만 좀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한 方案이 있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중요한 質疑 두 가지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契約期間이 보통 3年으로 市金庫 契約이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이것을 내년도 같은 경우 限時的으로 6個月이나 1年이나 뭐 이런 식으로 短縮해서 과거 慣行과 달리해서 할 수 있는지 與否하고요, 自治區가 별도의 다른 銀行을 선택했을 때 政策上的 問題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그것은 限時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年이 꼭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市가 指定한 金庫하고 自治區들이 틀렸을 때 問題點은 없느냐? 그런 問題點에 대해서 檢討를 한 일이 없느냐? 지금 自治區에 대한 金庫의 變更問題는 自治區의 所管이기 때문에 지금 市가 어떻게 統制를 할 方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業務的인 問題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市가 資金을 商業銀行으로, 만약에 商業銀行이 市金庫가 되어서 거기다 移替를 했는데, 또 다른 銀行으로 그 돈을 보내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商業銀行 같은 데에서 그냥 하니까. 그런 상당한 問題들은 있는데, 그 問題들은 市보다는

그것을 市하고 같이 안하는 그 區廳에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市와 區가 다시 協議는 해 보겠지만 그것이 강제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현재로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 투명하게 한다는 얘기 부분은 이제 투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論議를 하다가 商業銀行이 되든 어디로 가든 어떤 條件에 어떻게 했다는 부분은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問題提起가 되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決定한 事項을 반드시 言論이나 이런 데에 公開하지 않고는 못배길 정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 투명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

○委員長 文錫珍; 다른 質疑는 없으십니까?

鄭水華 委員님 質疑하시겠습니까?

○鄭水華 委員; 네.

○委員長 文錫珍; 質疑해 주십시오.

○鄭水華 委員; 梁委員님, 市金庫 얘기입니까?

○梁敬淑 委員; 네.

○鄭水華 委員; 그럼 먼저 하세요.

○委員長 文錫珍; 그럼 市金庫 얘기 먼저 하시고, 다음 質疑받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고맙습니다.

저는 숫자가 어떻고, 어느 銀行으로 落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公開入札制를 導入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檢討도 중요하지만, 아까 盧載東 委員님이

指摘을 하셨듯이 그 동안에 會計課나 財務局에서 이 市金庫가 數兆원의 서울시 市民들이 낸 豫算들을 다루는, 그리고 執行하는 執行機關인 執行部에서 좀더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資料를 잘 整理하고 있느냐 마느냐의 問題도 있지만, 基本的으로 자세에 있어서 전혀 이 問題가 굉장히 심각하게 發生하고 있고, 또 問題가 있다고 根據 있게 指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디의 반성이나 한 마디의 자세 轉換에 대한 意志를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會計課長 같은 경우에는 특히 月別 資金運用計劃書を 作成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作成을 했다고 그래서 資料를 要請했더니 한 열흘 있다가 그 資料를 가지고 왔는데 다 손으로 써가지고 왔어요. 아주 지저분하게 해서 손으로 쓴 資料를 복사해서, 지금이 컴퓨터時代이고 科學化時代인데 아직까지도 손으로 써서 그것을 복사해서 그것을 委員들한테 돌리고 있는 수준의, 그 정도의 수준밖에 서울시가 資金管理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선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資金運用計劃書가 잡히면 당연히 資金運用 執行內譯이라든지 月別이나 또는 分期別이나 이렇게 整理를 하고, 그것을 한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는 會社 같은 경우에는 1週日에 한 번 열흘에 한 번도 報告하고, 資金運用을 評價하고 다음 計劃을 세우고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늦더라도 15日,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것을 市長한테 報告하고 問題點은 뭔지, 改善方向은 뭔지 이런 부분이 늘상적으로 整理되고 報告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수 십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왜 안했느냐 그랬을 때 答辯은, 아무 市長도 그것을 要求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式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改善해 나가겠다는지 어떤 자세로 일을 하겠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는지, 지금 정도는 改善方向이 나와 줘야 됩니다. 改善方向이 오늘 정도 報告가 되어야 돼요, 이 정도로 問題提起를 많이 했으면.

그런데 資料라고 提出하는 부분도 일부만, 一般會計에 대한 부분만 提出하고 있고 전체적인 方向에 대한 一言半句의 言及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로는 執行部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세로 계속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答辯을 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商業銀行이 서울 市金庫를 預置하고 있는 代價로 그런 돈을 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代價로 분명히 서울市에 돈을 寄附하고 있었어요. 商業銀行에서 本委員한테 提出한 資料만 봐도 88年度부터 95年度까지 불우이웃돕기다, 靑少年自立基金이다, 災害基金이다 해서 49億원을 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報告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부분은 다른 銀行은 그런 것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結託의 代價로 公開적으로 支拂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誠金을 그럼 누가 接受를 하고, 받아서 어떤 節次와 過程을 통해서 執行을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補充質問하지요」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補充質疑입니까?

○李延義 委員; 네.

○委員長 文錫珍; 李延義 委員 補充質疑해 주시지요.

○李延義 委員; 財務局長께서 序頭に 서울市長이 就任과 동시에 묵은 틀을 벗기고 새로운 자세로 임하겠다는, 원칙을 중시하고 따르겠다는, 市政의 主人인 市民에 의한 行政을 펴겠다는라고

財務局長께서 序頭に, 業務報告에 얘기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財務局長께서 市金庫를 분명히 財務經濟委員會 市金庫調査小委員會와 協議해서 改善에 대한 對策을 講究하겠다고 答辯을 했는데, 이 事案이 워낙 중요한 만큼 이제 幕은 틀을 벗기고 새로운 자세로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때에 지금 분명히 財務局長께서 여러 가지 運營計劃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잘못을 또 是認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商業銀行이 그 동안 많은 特혜를 누린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幕을 틀을 벗기고 새로운 자세로 임하려면 商業銀行을 당연히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答辯을 財務局長, 이제 局長 立場에서 좀 얘기해 주시고.

또한 부득이 해서 限時的으로 運營될 때 이제 運營을 또 해서 再契約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定期預金 金利로만 適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것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제 金利制度가 바뀐 높은 高率로 해야 될텐데, 限時的으로 하더라도 이 定期預金 金利로 適用한다는 內容을 바꿀 用意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새로운 經濟마인드를 導入한다고 하면 이제 限時的으로 運營된다 하고, 설사 그 동안까지 改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公開競爭入札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이 公開競爭入札에 의해서 複數制를 하든 또 다른 金融機關이 맡는다 하더라도 그 引受引繼 節次가 상당한 期間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限時的으로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지금의 任期가 끝나기 전에 그러한 制度로 計劃을 세워서 公開競爭入札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데 거기에 대한, 또 아울러서 市政의 主人은 市民, 더 얘기하면 市民의 代表인 우리 市議員, 더 좁히면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확실하게 協議를 거쳐서 하나 하나를 決定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答辯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어려운 質問을 하셨는데, 우선 梁敬淑 委員께서 資料問題, 아까 盧載東 委員님, 金勝建 委員님, 資料問題에 대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平殘 같은 것을……. 제 솔직한 말씀인데 平殘 같은 것을 우리가 내지를 못해요, 매일 日平殘,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나온 資料들을 제가 지난 金曜日에 봤습니다. 그때 까지 제가 한 달 거의 가까이 있으면서 이 資料를 저도 못봤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會計課長께서 저한테 아주 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基本的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는 理由는, 우리가 私企業이 다루는 그런 쪽의 金庫管理를 안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資料들을 내자면, 한 1年 동안에도 매일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아니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낸 資料들이 사실 商業銀行에 의존을 해서 나왔는데, 商業銀行이 늦게 나와서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우리 會計課長이 늦게 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한테 아주 심한 욕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資料들을 그렇게 빨리 낼 수가 없었던 立場이라는 것을 좀 理解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業務에 대한 改善方案은 書面으로 제가 構想을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러분들도 金融系統에 계신 분

은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資金管理에 대해서 民間企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래 本會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金融의 專門家를 우선 確保를 해서 거기에 따른 行政의 節次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月 資金計劃에서부터 전부다 檢討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도 못했느냐의 問題는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金曜日 제가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代案 같은 것도 課長하고 相議를 해서 만든 것이 지난 日曜日 제가 나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왜 그럼 그런 對策 같은 것을 안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 저는 小委員會에서 우리하고 協議를 할 때 그것을 이쪽 議會에서도 構想하고 있는 案이 있을 것 같고, 小委員會에서. 그래서 그 때 같이 그것을 내놓고 檢討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사실 오늘은 못 내놓았고, 또 그것이 가능한 代案들을 상당히 여러 가지 내놓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選定할 것인가의 問題는 저도 答辯을 드릴 수가 없는 問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檢討를 해서 최선의 代案을 찾자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에게 本會議에서도 그런 答辯을 했습니다.

그래서 梁委員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또 李延義 委員님께서도 公開入札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한테 答辯하라고 하는 問題도 지금 제가 答辯을 드릴 수가 없고, 또 本會議에서도 우리 梁敬淑 委員께서도 그것을 意志를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다만, 이런 것들을 公開入札에서부터 모든 代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論議를 해 보자 하는 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決定은, 또 決定權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까지만 제가 지금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梁敬淑 委員님께서 代價로 받았느냐 그 問題는, 그것을 꼭 代價로 뭘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水害義捐金이다 그러면 그것이 保社局에 水害義捐金 窓口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特別會計로 管理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돕기 誠金이면 이웃돕기 誠金特別會計 口座에 들어가서 管理가 되고 있지 누가 特定人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한 支出項目에 또 支出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돕기 誠金이면 이웃돕기 誠金을 一般財源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李延義 委員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바꾸겠느냐, 公開入札로 하겠느냐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든 代案을 놓고 우리가 한번 協議를 해 보자는 線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지금 그것을 決定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問題는 현재로서는 答辯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質問하겠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우리 金相男 委員님 質疑하시기 전에, 商業銀行에서 서울市에 寄附한 그러한 金額들이 5年間인가요 해서 한 49億원 된다고 했었는데, 他 銀行에서는 서울市에 어느 정도 寄附했습니까? 그 資料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그 부분은 말씀이지요, 저희들이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웃돕기 誠金窓口に 가보면 商業銀行 이외에도 거기 이웃돕기 誠金으로 내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에는 그 資料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는 그 資料에 대해서는…….

○委員長 文錫珍; 財務局所管 事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네.

○委員長 文錫珍; 네, 알겠습니다.

金相男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잠깐, 우리 會計課長께서 梁敬淑 委員이 손으로 쓴 問題에 대해서 무슨 말씀 좀…….

○金相男 委員; 네, 얘기하십시오.

○會計課長 林綵瑾; 會計課長입니다.

資料를 제 때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성실히 한다고 했는데 委員님 여러분들 보시기에 성실히 안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梁委員님께서 91年度부터 95年度까지 資金執行計劃書を 달라 그래서 執行計劃書, 資金執行計劃書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만, 91年度 것은 그 때 컴퓨터가 안 되어 있어서 이렇게 局長님이 사인하신 起案紙가 있고 그 밑에 91년도 것이 손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92年度부터는 모두다 이렇게……. 92년까지 손으로 쓰여져 있네요. 그 다음에 93年度부터는, 그 때 부터는 전부다 컴퓨터 資料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委員님, 그 91年과 92年 것도 설사 原本에는 이렇게 손으로 쓴 것이라도 그것을 타자로 못해 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執行額이 없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局長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梁委員님도 저보고 여러번 지난 번에도 질책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100% 受容을 하고 100% 그렇게 못했다 하는 것을 認定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執行計劃에 의해서 月別로 쓰고 月別로 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렇게 理解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相男 委員; 제가 質問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會議가 이슈가 전부 市金庫 件으로 集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小委員會가 몇 번 活動을 했고, 또 여러 委員님께서도 열심히 資料 蒐集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市金庫의 問題點이, 이것은 우리 小委員會를 代表하는 것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意見입니다. 金相男 委員의 개인적인 意見이니까, 우선 제가 볼 때는 餘裕資金에 대한 定期預金 期間을 決定하는 體制가 좀 미흡하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1%짜리 公金예금의 平殘이 조금 過多하고, 다음에…….

이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一般會計든 特別會計든간에 資金執行에 대한 효율적인 計劃을 잡는 그러한 體系가 미흡해요. 그러니까 定期預金에 대한 그 期間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는 그러한 問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問題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94年度, 95年度에는 中途解止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餘裕資金이 자꾸 늘어나니까 아마 中途解止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中途解止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餘裕資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中途解止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問題는 아까 市金庫에 入金되는 날짜가 5日 내지 10日이 걸린다 그랬는데, 그것을 좀더 줄일 수 있는 方法이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한 檢討도 필요할 것 같고, 그 過程에서 예를 들어서 納期日 前에 納稅者들이 낸 稅金이 收納銀行에서 流用되는 경우는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組織的인, 體系的인 確認制度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좀 質問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地方財政法上에 餘裕資金 運營을 定期預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定期預金の 解釋이 CD나 信託이나 이런 데에는 할 수 없느냐? 꼭 우리가 狹義로 생각하는 定期預金만 가능하냐, 廣義의 定期預金 즉, CD나 信託은 할 수 없느냐? 이것에 대한 檢討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檢討하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아까 問題로 指摘했던 餘裕資金을 이제 예를 들어서 地下鐵特別會計에서 資金이 양키본드든 政府 補助金이든 해서 들어왔다 하면 그 돈을 어떤 經路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3個月짜리나 또는 6個月짜리나 1年짜리 定期預金を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을 아까 플로 차트로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이, 왜 서울시 資金執行에 대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計劃이 樹立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會計課長께서는 어떤 經路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確認해서 그 預金期間을 정하느냐? 그것을 좀 잘 說明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問題가 됩니다.

왜냐하면 3個月짜리는 5%이고, 지금 현재 固定金利로 볼 때 말이지요. 그 다음에 6個月짜리는 7%, 1年짜리는 9%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3個月짜리 네 번 하면 결국 5%밖에 못받습니다. 그렇지만 1年짜리 한 번 해 버리면 9%를 받거든요, 거의 2배에 가까이 利子를 받는데 어떤 經路를 통해서 어떤 根據로 그 定期預金 期間을 정하느냐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金利自律化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 地方財政法上에 定期預金이 狹義로 생각하는 定期預金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金利自律化에 의해서 特約이 가능

합니다, 特約이.

1個月짜리 定期預金에 대해서는 전부 特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特約에 대해서도 한번 檢討를 해 보시고 있는지?

왜냐 하면 지금 市金庫 이 問題가 問題로 이슈화되어서 벌써 상당한 時間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財務局長께서도 우리 市議會하고 같이 協議해서 좋은 方案을 찾고 싶다 그랬으니까 執行部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檢討하고 또는 確認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 이것을 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가 商業銀行이 쓰고 있는 각종 事務室에 대한 賃貸料가, 그것이 策定基準이 제가 알기로는 鑑定院 鑑定價格에 의해서 基準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責任料 策定에 대한 基準, 또 그것이 몇 年마다 한번씩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說明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市金庫에 대한 다른 어떤 質疑事項 있으십니까?

(「제가……」하는 委員 있음)

市金庫에 대한 質疑事項이십니까?

○白南善 委員; 네, 그렇습니다.

局長님께서 그 동안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는 쪽으로 金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資金을 管理할 때 처음에 생각하는 것은 金利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평소에 어느 銀行이나 그래도 약 한 10%에서 한 12·3%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약 한 절반 上廻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어떤 結託을 商業銀行과 市 運營하는데 結託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기 보니까 5페이지에 91年 당시 50億원을 들여서 OCR센터를 商業銀行에서 마련을 했는데, 그 당시에 人力 45名을 策定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人力을, 우리가 여기서 課稅를 徵收할 때 15日에서 30日 基準합니다. 말하자면 한 달에 한 15日 정도 基準해서 徵收를 하는데, 그러면 그 人力이 15日밖에는 사실 所要하지 않는 人力을 그 안에 15日은 무엇을 했는가? 바로 이런 데에서도 의혹을 가집니다.

적당하게, 말하자면 便益을 위해서 運營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 같은 아주 가까운 龍山區에 보면 龍山區廳 바로 머리 앞에 商業銀行 支店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어떠한 서로의 結託에 의해서 이런 狀況이 非一非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內容을 좀더 확실하게,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檢討하신 바 있겠지만 이 問題를 오늘 분명히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래도 적으나마 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저런 일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이제 비록 우리 局長님이 赴任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責任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까 金利, 사실 돈이면 金利입니다. 그래야 管理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어떻게 적당히 넘겨버리니까 정말로 좀 섭섭하고요. 이 問題에 대해서 이것만이라도, 이런 人力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분명히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會議를 좀 효율적으로 進行하고 또 우리가

우리 常任委에서는 執行部가 한번 약속을 하면 실천한다고 하는 意志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일단 지난번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常任委에서 資金管理에 대한 節次를 분명히 說明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10分間 停會하고 나서, 특히 우리 金相男 委員님이 質疑하신 內容이 사실은 그러한 資金管理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節次上의 모든 부분을 說明하셨으면 이러한 것에 대한 質疑가 또 다시 중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金相男 委員님 質疑하신 內容과 白南善 委員님 質疑하신 內容을 포함해서 지난번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金庫業務中에서 歲出, 특히 資金運用 부분에 대한 節次를 停會한 다음에 續開할 때 다시 說明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質疑事項은 續開해서 다시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34分 會議中止)

(15時 54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錫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우리가 市金庫에 대한 質疑를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停會 後에 市金庫에 대해서, 특히 資金管理 運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金相男 委員님과 白南善 委員님이 質疑하신 內容을 포함해서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答辯을 듣고요, 꼭 필요하신 경우에 한 분 정도만 더 質疑하시고 기타 質疑事項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더 필요한 質疑事項이 계시면 저희들 市金庫制度改善小委員會가 있으니 그쪽으로 質疑內容을 주시면 대신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答辯, 아까 追加質疑한 事項과 그리고 資金管理運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金相男 委員님께서 中途解止는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資金管理 問題가 中途解止가 없었던 理由는 돈이 우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온 부분이, 작년도에 財産賣却收入이 예상보다 한 7,000億원 더 들어왔고 또 地下鐵에서 한 8,000億원 정도가 未使用額이 나서 그것 때문에 資金의 여유가 이렇게 많이 생겨서 지금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아서 5日 내지 10日이 걸리는데 이것을 줄일 수 없느냐의 問題는, 사실 이 作業은 商業銀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받는 銀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納期를 받아서 15日 넘어 갔기 때문에 한 15日 내지 한 45日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작년에 이것이 바뀐 制度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手數料 名目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다시 檢討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定期預金の 解釋 與否가 CD도 가능하냐, 그 다음에 信託 쪽도 가능하냐, 證券도 가능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法的으로 그런 制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會計課長께서 財務部하고 公金관리하는 데는 전부 가서 問議를 해 봤는데, 그런 制限은 없는데 CD는 財務部 쪽에서 전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信託部分은 그것이 豫定金利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豫定金利를 確約金利로, 確約金利로 해 줄 수는 없느냐? 그것을 만약 確約金利로 해 준다면 그것은 法에 違反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 豫定金利로 만약 預金을 해서 이것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公金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金相男委員; CD는 괜찮다 그것입니까, 그럼?

○財務局長 權五虎; CD는 괜찮다는 見解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資金運用 方法은 우리 會計課長이 說明을 하도록 하고, 金利自律化에 따라서 特約部分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商業銀行에다 너희 얼마 줄래 하는 얘기는 우리가 公開로 할 경우에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公式적으로는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누는 말로는 한 1% 정도는 더 줄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것은 현재보다는 1%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商業銀行도 同意를 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더 要求를 하면 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商業銀行 賃貸料 策定問題는, 우리 서울市の 여기 쓰고 있는 問題는, 土地는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建物 바닥 面積에 대하여 1層을 使用하는 경우는 1/2, 2層을 使用하는 경우는 1/3을 곱해서 土地價格을 算出해서 거기에 5%를 곱하여 算出을 하고 있습니다. 建物을 鑑定價에다 5%를 곱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白南善 委員님께서 OCR센터 人力問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 나온 人力이 많고 적고, 안 쓰고 쓰고의 問題는 우리가 돈을 支出을 안하기 때문에, 商業銀行이 쓰는 問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는 資料를 그냥 提出했을 따름이지, 이 問題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活用하느냐의 問題이기 때문에 그렇게 理解를 해 주시고, 아까 분명히 利子部分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契約을 하겠다는 부분은 協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
가 이렇게 公開的으로 納得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委員
님들하고 協議하겠다는 말씀으로 같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會計課長님께서 資金運用 쪽을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會計課長 林綵瑾; 資金運用 方式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전에 小委員會를 열었을 때 제가 그 때 여기에 陪席
을 했습니다. 할 때, 94年을 準備해서 1日 한 198億원이 支
出되고, 平均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한 200億원 정도가 들어
온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것을, 資料를 委員님들한테 專
門委員님을 통해서 가도록 休息하기 전에……. 네, 그것을
좀……. 그래서 1日 平均 200億원 정도 내외 固定的 資金配
定과 그 다음에 서울市教育廳 轉出金, 分期別로 이렇게 나갑
니다. 그 다음에 地方交付金, 區廳에 나가는 交付金, 큰 덩어
리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울市教育廳에 나가는 轉出金, 그
다음에 또 각 區廳에 나가는 地方交付稅, 그 다음에 地下鐵建
設本部에서 각종 地下鐵 建設을 위한 借入金에 대한 元利金
利子, 그 다음에 우리 傘下 機關의 一般會計에서나 特別會計
에서 나가는 公社 轉出金, 그 다음에 國民住宅資金 등에서 각
住宅局에서 빌려온 利子,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크게 무더기
로 뭉뚱뚱 몇백억원씩, 경우에 따라서는 7·800億원씩, 500
億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것이 큰 原因입니
다. 이런 住宅資金 利子 등, 元利金 등 支出時期가 決定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要請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미리 우리 會計課에 이 資金을 支出하기 위해서
審査係 같은 데에서 와서 原因行爲를 해 달라고 推算을 해
갑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이 資金은 앞으로

열흘 있다가 나간다, 이것은 보름 있다가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5日 있다가 나간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支出時期를 예측할 수 있는 큰 額數의 資金과 며칠 내에 또 支出이 예상되는 조그마한 몇 억원, 한 7·8,000萬원, 그 다음 1·2億원 이런 事項들도 또 수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事項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큰 資金과 며칠 내에 支出이 豫想되는 資金을 종합판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합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科學的으로 컴퓨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것을 판단할 때 최초의 業務를 말씀드리면, 우리 擔當主事가 현재 公金으로 매일 198億원 정도가 들어오고 200億원이 나가니까, 항상 돈은 들어오고 나가니까 擔當主事が 아, 지금 현재 돈이 公金으로 4,000億원이 있다 이랬을 때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을 다 머리에 두고 勘案하면서 아, 이것 1週日 後에 1,000億원 나가고, 2週 後에 1,500億원 나가고, 5日 後에 600億원이 나가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事項을 1日 公金으로, 待機性 預金으로 두는 것이 目別로 따져보면 작게는 전체 우리 資金의 1% 내지 한 4% 범위 내에서 두고, 殘餘 餘裕資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殘餘 餘裕資金은 主管課에 資金所要 등을 問議합니다. 전부가 다 件件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1週日에 한 번 정도, 그 때 여기 委員會에다 資料를 提出한 바 있습니다만, 9月 10日이면 9月 10日, 7月 10日이면 7月 10日 현재 定期預金이 1個月짜리로부터 3個月, 6個月, 그 다음 1年짜리 定期預金を 뽑아와 봐라 이렇게 하면, 그것은 수시로 필요합니다. 뽑아오면 1個月짜리는 조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고, 3個月짜리가 6個月짜리보다 조금 많다, 그렇습니다.

그럼 3個月짜리는 한 100口座에 한 2,500億원이 있고, 6個月짜리는 한 70口座에 1,500億원 정도가 있다, 나머지는 1年짜리니까 1年이다. 그래서 제가 주판을 봐보면, 큰 덩어리를 말씀드립니다. 주판을 봐보면 1年짜리 이상이 한 62·3·4%까지가 있다. 그러면 1年짜리 이상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했지만 定期預金에 충실하다. 최고 %인 9%의 定期預金에 충실한 그 관념을 계속……. 오늘날까지 그렇게 見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年 이상짜리, 9% 이상짜리가 야, 육십몇% 들어가 있다, 그것을 제쳐놓고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왜 3個月짜리가 6個月보다 더 많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着眼을 해서 이렇게 위에 計劃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個月은 2,500億원이 있고, 6個月짜리는 1,500億원이 지금 토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토털이라고 그리고 밑으로 좌측으로 보면 一般會計가 있고, 特別會計 10個가 죽 나와서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아……. 이번에 하나 예로 든다면 한 한 달쯤 됩니다만 아, 보니까 都市特別會計 다시말하면 구획정리와 비슷한 도시특별회계에 돈이 2,500億원이 잠겨 있고, 3個月짜리 2,500億원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6個月짜리는 거의 돈이 불과 몇백억원 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職員보고 보시게, 여기에 3個月짜리 2,500億원을 6個月로 돌리면 안 되겠느냐 혹은 1年으로 돌리면 안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금년 얼마……. 금년 한 달여 전부터 제가 그

렇게……. 이 케이스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즉각 都市開發課, 이 會計를 갖고 있는 都市開發課에 다 제가 公文을 照會를 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조회를 하느냐 하면, 몇월 며칠 현재 돈이 2,500億원이 3個月짜리로 豫置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 돈이 계속 維持가 될 것이냐, 앞으로 최소한도로 2,500億원, 1,000億원 혹은 얼마가 6個月까지 延長이 될 수 있는 殘高가 남아 있을 확률이 있어야만, 答이 나와야만 옮긴다 말이지요. 그래서 照會를 낼 때 현재 앞으로 들어올 돈은 얼마이고, 8月부터입니다. 8·9·10·11·12·1·2까지 해서 8月부터 12月까지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얼마이며, 그 다음에 나갈 돈은 얼마며, 남은 돈은 얼마냐? 이렇게 제가 照會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오늘 이 時間에는 3個月짜리가 2,500億원 있는데, 照會를 해 보면 8月末 현재는 2,500億원 있는데 9月에는 歲入이 전혀 없다, 歲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불과 몇백억원, 몇천만원뿐이 없다 이것이지요, 들어오는 것이 없다. 그 대신 9월에 나가는 것은 1,500億원이 나간다, 또 그 다음에 9월에 들어가면 9月에는 또 歲入이 한 1,000億원 들어온다, 밑에다 삼각을 해서 500億원 이렇게 해 봅니다. 또 10월에 가니까 歲入이 1,000億 들어온다.

그 때 나가는 것은 900億원이 나간다, 남는 것은 2億원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2月까지가 年度閉鎖機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보면 한 달은, 그것이 歲入과 歲出이 連繫되어서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야 殘高가 資金으로 얼마나 남는가 問題이기 때문에, 보면 오늘 이 時間 前에 2,500億원이 3個月짜리로 남아 있는데 다음달에는 모자란다, 또 그 다음달에는 조금 남는다, 그 다음달에 넘어가면 영 천몇백억원이

모자란다, 저 넘어가면 2,000億원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정도라면 이 2,500億원은 3個月짜리에서 6個月짜리로 도저히 올릴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 3個月짜리로 둘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殘餘 餘裕資金은 主管課에 所要資金 등을 問議하여 定期預金 加入期間을 그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는 컴퓨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딱딱딱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擔當職員이 판단을 해서, 擔當職員은 職員대로 판단을 합니다, 擔當主事가. 그러면 이것을 支出係長, 우리는 支出員이라고 그러합니다. 이 支出員의 도장이 찍혀야만 단돈 10원도 銀行에서 돈이 나가는 이런 會計職 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支出係長입니다. 支出係長 決裁를 거쳐서 저한테 옵니다. 오면 제가 이것을 보고 아, 擔當主事, 아무개 主事, 이것이 오늘 돈이 카드를 보니까, 日計表를 보면 2,500億원이 都市開發資金에 그냥 가서 있는 이것이 몇 個月짜리냐? 아까 말한대로 3個月짜리다, 그러면 이 부분을 즉각 照會를 해내라, 그렇게 照會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꼭 그대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支出係長이 確認해 주면 제가 최종적으로 決裁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 委員님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財務局長이 계신데 왜 전부 다 會計課長이 오늘날까지 해 왔느냐? 오늘날까지 會計課長이, 과거 會計課長부터 계속해서 會計課長이 해 왔는데 그것을 原因을 보니까, 우리 서울特別

市……. 우리 梁委員님 提示를 다 했습니다만 서울特別市委任 專決規程에 資金의 管理는, 資金의 引出이라든지, 資金의 판단이라든지, 資金의 이 會計에서 저 會計로 며칠간 빌려주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會計課의 決裁事項으로 業務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태까지 작년 12월에 와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設計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미 要請을 내 놓았습니다, 局長님 허락하에 사인을 받아서 人事當局에 要請을 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9月 11日 1,968口座에 1兆 9,500億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日字別로, 제가 預金을 시킨 현재 1,200口座에 대해서 預金을 시킨 날짜별로 죽 전부 다 큐뮤레이션에 집어 넣으려고 그러합니다. 넣어서 매일 이 職員은 이것만 가지고 6個月로 옮기느냐, 6個月짜리를 12個月로 옮길 것이냐, 그 다음에 1年짜리도 아까 63% 가까이, 62.6%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다른 9%를 받는 定期預金 외에 長期性 預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餘裕 資金이냐 하는 것까지도 分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要請을 해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資金을 管理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 실정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저희가 좀더 구체적인 質疑는 小委員會로 넘기도록 했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資金 運用方式으로 1페이지짜리 이것을 주셔서 사실은 제가 이러한 것이 결코 우리가 期待했던 플로 차트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나누어 줄 필요가 없겠

다고 해서 나누어 주지 않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會計課長께서는 이것 자체가 저희들이 要求한 事項에 副應되는 答辯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期待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그러한, 資金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說明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運用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자 해서 要請을 했던 것인데, 좀 그런 事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하시고, 가능하시면 여러분께서 小委員會에 質問事項을 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金勝建 委員님.

○金勝建 委員; 지금 會計課長 說明하신 것 제가 委員長님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委員長님께서 要求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資金運用方式이라고 저희한테 나누어준 것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相關關係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書面으로 조금 더, 지금 여기서……. 제가 이것 좀더 體系的으로 해서 書面으로 質問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會計課長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말씀을 죽들어보면 主事 한 분이 어떤……. 지금 우리 同僚委員이신 金相男 委員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연 3個月이나 6個月이나 1個月이나 1年을 누가 決定하느냐 하는 그런……. 決定權이 누가 있느냐에 대한 質問에 答辯을, 제가 지금 理解하기로는 主事 한 분이 계셔서 그 主事분이 다음 달 것, 그 다음 달 것을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어떤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시뮬레이션 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局長님한테 報告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람을 가져 오겠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왜 당혹스럽느냐 하면, 저는 龍山區에서 왔지만 龍山區廳에만 하더라도 제가 區廳에 잠깐 가면 주로 區廳의 課長級에 계신 분들이 뭘 많이 가지고 와요. 비밀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地方 交付金에 대한 公式에 대한 研究, 市政開發研究院에서 이런 論文이 나왔는데 자기는 이렇게 論文을 써서 자기 오차가 적다, 또 이런 것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公聽會를 한번 財務局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한 세 個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제가 市政開發研究院의 研究資料를 좀 달라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 지금 제가 지신이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資金運用方式에 대해서, 서울市 資金運用方式에 대해서 서울 市政開發研究院에서 研究한 資料가 전혀 없습니까? 이것 用役을 맡겨 본 적이 없습니까?

○會計課長 林綵瑾;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12月 13日 와서 오늘 9個月 勤務하는데,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했거나 여기에 대해서 體系的인 쪽으로 運營해야 되겠다 하는 그 運營을 어디다 의뢰를 했거나 用役을 했거나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제 委員님들이 제가 말씀하신 것을 보고 너무나도 非科學的이고 非體系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 실상이 오늘날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發展시키고 補完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느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金勝建 委員;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常任委員會에서 따로 決定을 해서 이것에 대한 制度的 補完이 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한번 講究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감사합니다.

市金庫에 대한 집중적 質疑를 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市金庫制度 中에서 특히 資金을 運用하는 측면에, 지금 擔當을 맡고 계시는 會計課長의 說明에서도 있듯이 결코 科學的이지는 못했다는 이런 答辯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改善을 저희 財務經濟委員會에서도 하겠지만 執行部에서도 좀더 심층적으로 制度改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方案을 講究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質疑事項을 質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朴南植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朴南植 委員; 朴南植 委員입니다.

서울市 自治區間 財政 不均衡을 調整하기 위하여 市는 서울 特別市自治區財源調整에關한條例에 根據 調整交付金으로 매년 自體財源이 不足한 自治區에 不足分을 支援하고 있는데 첫째, 서울市는 地方讓與金 및 地方交付金の 對象에서 除外되어 있고, 이를 根本적으로 改善하기 위하여 交付對象에서 서울市를 포함하는 方案을 지금까지 政府와 어느 線까지 推進하고 있는지 그 現況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각 自治區別 財政偏差 解消對策에 대한 局長의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어제 우리 企劃管理室 質疑에서 있었는바, 최근 大統領 選舉 公約으로 提示되었던 教育財政 確保方案으로 國民總生產 GNP에 對比 5% 수준의 62兆원에 달하는 막대한 財源이 3년에 걸쳐서 教育에 投資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財政 確保方案을 보면 教育稅가 50%, 政府 豫算이 30%, 自治團體

支援이 20%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첫째, 서울시의 財源이 3年 동안 얼마나 어떻게 支援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本委員이 알기로는 教育財政交付金法에 의거 서울시 中高等學校 教師들의 俸給 全額을 負擔하고 있는데, 負債가 많아 財政 壓迫을 받고 있는 市가 基礎的인 中·高等學校 教師 俸給까지 負擔해야 하는지? 이것을 당연히 國家가 負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앞으로 違憲性 是非와 市の 對策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教育財政을 保有함에 있어 教師들의 俸給은 全額 國家 豫算에 넘기고 이에 대한 豫算을 다른 用途로 活用할 方案이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993年 11月 行政事務監査에서 滯納市稅 5年間 2,700餘 億원 不納金の 缺員處分 최소화, 痼疾的인 高額滯納者에 대해서 行政力을 動員했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城東區 廣壯洞 大동화학주식회사가 高額滯納者로서 住民稅 滯納 11億 6,100萬원이 있는데, 그 동안에 回收를 했는지 그 法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自體監査結果報告書에 보면, 22個 自治區 主要 指摘事項으로 登錄稅 徵收決定 遲延 또는 未履行, 登錄稅 徵收決定 부적정, 收納領收證 形式的인 對査 및 關聯措置 소홀, 登錄稅事務處理簿 擔當者 確認 및 決裁 漏落, 物件地 記載者 없는 納付領收證 確認 및 整理 소홀 등으로 徵收業務가 엉망인데 그 原因이 어디 있으며, 이에 대한 對策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自體監査에서 是正措置에 대해서 財政措置로 該當機關에 還收토록 指示한 金額이 43億 6,000萬원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95年度 過誤納 還拂現況의 答辯에 보면

95年度 6月末 현재 過誤納 還拂은 145億 6,700萬원이 發生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過誤納 原因이 무엇이며, 民願人들에게 어떻게 處理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對策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錫珍; 여러 가지 質疑事項을 해주셨는데요, 條目別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먼저 地方財政 問題에서 讓與金이나 交付金を 좀 서울시로 가져올 수 없느냐? 글쎄, 이것은 상당히.....

아까 電話稅를 우리가 가져오는 問題와 관련해서 상당히 매년 是非를 걸었습니다. 是非를 건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公文으로 자꾸 推進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線입니다. 우리가 法律에 대한 改正提案權도 없고 해서 그런.....상당히 소극적인 方法입니다만, 앞으로 讓與稅法을 改正할 때는 서울시에도 讓與稅를 좀 配付를 해 주겠다 하는 線 정도의 答을 듣고 있는 形편입니다. 그것도 이제 사람이 바뀌면 또 어떤 狀態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 推進이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電話稅를 우리 讓與金으로 해 달라는 問題도 계속 要求를 하고 있는 그런 形편입니다.

國家하과의 관계는 그렇고, 區의 財政偏差의 問題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問題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問題이고, 또 이것이 先進國.....

우리하고 거의 같은 日本의 경우에도 이런 財政偏差가 우리보다 長期間 해왔지만 상당히 더 심각한 形편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論難이 되었던 담배消費稅와 交換의 問題도

바로 이 財政偏差를 解決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서울市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젠가 區廳長님 全體會議에서 전체 區廳長들이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현재 대로 봐다오, 이런 쪽의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內務部에 우리가 提案을 해 놓은 狀態이고, 內務部가 그것을 檢討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市의 豫算을 區廳으로 내려주면 될 것 아니냐? 지금 電話稅를 그냥 내려주고, 自動車稅도 내려주고 다 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市의 빚이 4兆원입니다. 市가 써야 될 돈이 區廳보다 더 급하고 더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區廳이 어렵다고 그래서 계속 내려주고 그럼 市는 손발 붙들어매고 일을 안할 것이냐? 이런 소위 基本的으로 지금 전체 國家의 歲入을 國家는 얼마를 쓰고, 中間自治團體는 얼마를 쓰고, 基礎自治團體는 얼마를 쓴다는 것을 과거에는 그것을 사실 強制配分 形態로 해서 運營을 해 왔는데, 지금 이것이 法的으로 收入의 限界를 딱 정해 놓고나니까 이제 이것은 내 것, 이것은 네 것 그래서 자꾸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地方基礎自治團體가 쓸 돈이 전체 얼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 돈의 범위 내에서 써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돈이 모자라는 것은 國家나 우리나라, 廣域自治團體나 基礎자치단체나 똑같은데 이것을 자꾸 내려달라 하는 데에도 상당한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인 改善을 해서 자꾸 改善이 되어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지금 自立度의 問題로 보면 瑞草나 江南이 지금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財政支援을 안 받는 것이 100%인데, 基準財政需要

對 基準財政支出로 보면 江南이 213%입니다. 江南이 필요로 하고 있는 돈의 배가 지금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城北이나 道峰 같은 데는 基準財政需要의 100%를 지금 맞추어주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돈에서 모자라는 부분 그것만 딱 맞추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럼 과연 우리가 江南이 自治의 혜택으로, 그 스스로의 自治區의 혜택으로 그렇게 富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江南이 問題이지만, 지금 이런 強制配分의 쪽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으니깐 이것은 좀 調整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것이 市의 생각이고, 그런 쪽에서 이것을 檢討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政府하고 관계되는 問題인데, 教育財政 確保를 위해서는……. 教育財政 問題는 사실은 제 所管이 아니고 企劃管理室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答辯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다만, 中·高等學校 敎員 俸給問題는 全額을 지금 우리가 負擔을 하고 있고, 他市·道는 半을 負擔하는 데도 있고, 또 전체를 國家가 다 負擔하는 데도 있고, 地方自治團體의 財政 能力에 따라서 差等으로 되어 있었습니

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國家 全體豫算을 強制配分式으로 나누는데 따라 그렇게 됐고, 또 그 부분가지고도, 예를 들면 서울市가 그것을 주고도 다른 데 보다 더 여유있는 살림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까 江南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예입니다. 그러니까 江南의 경우는 그것을 좀 基礎自治團體도 負擔을 해라 그래서 과거에 負擔을 해 왔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못 줄테니까 政府가 負擔해

라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要求는 하고 있지만 政府가 그대로 잘 受容은 안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滯納市稅 問題, 구체적인 問題는 우리 課長님이 答辯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城東區의 問題하고.

그 다음 저번에 自體監査를 우리가 상당히 많은 人員과 또 長期間에 걸쳐서 전체의 것을 전부 다 監査를 다 했습니다. 登錄稅를 納付를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納付한 것 하고 전부 對照를 해 봤는데, 저쪽 富川이나 거기하고는 다르게 서울市의 경우에는 김종오라는 法務士가 관련된 그 두세 件 이외에는 거의 그런 것이 없고, 그것이 여기 43億 얼마 하는 것의 주종이고, 제가 城北區廳에서 그것을 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告知書 發給을 法務士가 하는데, 거기에 보면 國稅가 조금 붙어 있는데, 國稅하고 地方稅하고 플러스 해서 總額이 되어야 되는데, 總額을 딱 받고 보니까 國稅하고 地方稅하고 틀렸……. 地方稅 플러스 國稅가 總額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밑에 두 가지하고 內譯이 틀려서 銀行에서 고친 것도 있고, 또 計算을 잘못해서 조금 더 낸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고, 뭐 이런……. 件數는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은데 고의적으로 뭘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對策으로써는 그 때 政府 전체가 그런 對策을 했는데, 우선 전부 그것이 問題가 된 것이 手記告知書에서 問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 한 7·80%가 전부 電算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를 電算化로 하도록 하자, 그래서 서울市는 電算化를 다 했는데, 電算化를 해 놓고나니까 과거에 法務士가 쓰던 것도 1萬원을 내려면 區廳에 와서 이놈을 해 달라

그러니까 區廳에서 OCR카드 뽑는데 사람이 2·30名씩 몰려서 2時間, 3時間씩 줄을 서고 써서 內務部에서 할 수 없어서 내년 6月末까지는 手記告知書도 竝立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서울市の 地方稅 問題는 바로 이 告知書의 問題點이 아니고 課標에 대한 問題點입니다. 課標를 우리 公務員들이나 혹은 그 業者들이 課標를 자기가 調整할 수 있는 裁量權을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公開法人은 실제 取得價格을 그 價格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집을 하나 새로 짓습니다. 建物을 짓는데, 業者가, 그 法人이 그것을 와서 하면 그 法人 契約金額을 집의 價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契約價格을 똑 낮추어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契約價格대로 우리가 못 받아들이……. 그것이 公務員들이 그런 問題도 있고 해서 이 稅法이 稅率의 差等課稅가 상당히 복잡하고 해서 우리 一般市民들이 그것을 理解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公務員들 中에 그것을 惡用해서 당신 것 낮추어준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낮추어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좀 얻어먹고 하거나 이런 예들이 왕왕 있습니다.

서울市の 問題는 이것이 실제적인 問題고 해서 內務部에서도 그 때 그 改善案에 보면 이런 稅法을 좀 단순화하자, 너무 정밀하게 해서 市民들이 그 稅法을 모름으로써 자꾸 專門家인 公務員들한테 당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建議를 하고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財務局長으로 와서 우리 課長하고도 討議를 했고, 그것도 한번 建議를 해 보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土地나 같은 建物을 A라는 사람이 사면 取得稅가 100萬원이 되고 B라는 사람이 사면 150萬원이 되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이 사는 사람에 따라, 法人이 사는 것하고 또 개인이 사는 것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말 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이 하자, 그래놓으면 아무 問題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집은 우리가 帳簿價格으로 1,500萬 원이다 그러면 1,500萬원에 대해서 딱 賦課를 하면 A가 샀든 B가 샀든 누가 샀든 그런 쪽으로 한번 檢討를 해 보자 하는 案도 지금 提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徵收業務가 사실 엉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서울시는 그 때 그 결과가 그래도 市民들한테는 우리 區廳이 하도 많고, 5年分을 전부 해 보니까 件數도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徵收業務는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補完을 지금 制度的으로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制度改善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 過誤納 부분에 대해서는 擔當課長이 좀 答辯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指導課長 金煥吉; 稅務指導課長입니다.

朴南植 委員께서 여러 가지 質問을 해 주셨는데, 우선 城東區 廣壯洞 所在 대동화학은 이미 法定管理가 된 會社로서 93年度末에 法定管理가 解除되었는데, 이 때 商號가 거평으로 變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滯納額을 分納을 현재 하고 있는 中인데, 현재 약 1億원 정도만 滯納이 남아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過誤納이 相當額數 發生되고 있다, 그 原因과 對策을 要求를 하셨는데, 우선 過誤納의 主要原因이 行政的인 錯誤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는 實

務者들이 稅法 規定의 熟知를 하지 못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行政的인 錯誤 이외의 것은 異議申請이나 審査決定 또는 訴訟結果 敗訴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過誤納 되는 것, 그리고 또한 納稅期間을 넘겨서 未納되었던 부분이 다시 滯納過程으로 이루어지는 過程上에서 이미 納付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滯納으로 整理가 되면서 二重賦課가 되다보니까 그 사이 期間에 二重으로 告知書가 날아간 것을 納稅義務者가 또 다른 새로운 告知書인 줄 알고 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二重賦課가 됐다, 그리고 二重納稅가 됐다 해서 還拂措置되는 그런 경우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臺帳整理라든가 또는 電算處理를 정밀하게 함을 통해서 이것을 줄여 나가고, 그리고 行政的인 錯誤에 의한 것은 사실상 그 地方稅法이 매년 여러 分野에서 改正이 되는데, 이 事項을 實務者가 모든 事項을 정밀하게 알 수는 없는 事項입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稅目別 擔當者에게 週期的인 教育을 통해서 業務를 熟知토록 이렇게 하면서 改善을 시켜 나갈 그럴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滯納額에 있어서 相當額數가 지금 缺員處分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缺員處分을 저희들이 시킬 수 있는 것은 우선 納稅義務者가 滯納이 되어서 不渡라든지 破産이라든지 또는 死亡이라든지 이런 결과로 인해서 도저히 徵收 불가능한 그런 滯納部分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 동안에 相當期間 實務者들이 이것을 缺員處分을 하다보면 監査를 意識해서 長期間 그대로, 사실상에 徵收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長期間 滯納인 狀態로 남겨두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徵收 불가능한 것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長期的으로 累積을 시키는 것이

그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정밀하게 監査한 후에 도저히 徵收 불가능한 것은 缺員處分토록 이렇게 指導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缺員處分된 것이 상당수 發生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稅務非理가 있을 때, 여러 가지 非理事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작년도 年末에서부터 금년도 4월까지 약 5個月間 저희들 登録稅에 관한 監査가 進行이 됐었습니다. 이 때 나타난 非理 不正의 代表的인 類型을 말씀을 드리면, 納稅者가 登記登録 業務를 法務士에게 委託을 한 경우, 그리고 稅務公務員이 納稅者와 結託해서 課稅를 漏落시키거나 또는 적게 課稅를 한 경우, 그리고 正常的으로 稅金을 賦課하면서 納稅者에게 稅金을 적게 賦課한 것처럼 誤認시켜서 나중에 謝禮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非理發生 要因은, 우선적으로 地方稅 業務가 當時까지는 완전히 電算化되지가 않았다, 그러다보니까 그 手記告知書가 並行使用이 되다보니까 手記告知書를 作成해 納付하는 過程에서 稅金橫領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賦課業務와 收納業務가 分離되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지다보니까 同一業務 處理過程에서 不正要領을 터득해서 나타난 事例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稅務非理에 대한 監査 이후에 防止對策으로써는, 우선적으로 아까 業務報告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95年度 4월까지는 15個 全 稅目에 대해서 電算化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OCR告知書를 전부 發給할 수 있도록 된 것이, 그만큼 정도까지는 우선적으로 원천적인 豫防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OMR告知書가 필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他機關에서 發行하는 隨時分免許稅와 같은 것은 이것을 不得不 區廳까지 와서 OCR告知書를 發給받으려면 여러 가지 不便事項이 있기 때문에 현재 他 機關에서 發行하는 부분 등은, 불가피한 것은 내년도 6월까지는 手記告知書를 並行해서 使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OMR告知書를 통해서 원천적인 防止가 가능하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미 賦課와 徵收業務는 課를 별도 分離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措置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減額, 重課 등 복잡하고 난해한 地方稅 中 가장 問題가 되고 있는 부분이 取得稅 및 登錄稅 그리고 財産稅, 綜合土地稅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課稅標準額을 單一化해서 課稅時에 公務員의 裁量權을 최소화해서 이것을 納稅者가 該當 規定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서 단순화해서 할 수 있도록 法制化를 內務部에 현재 要請해 놓고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收納非理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防止하기 위해서 日日 決算을 電算으로 檢證하는 이러한 體系를 현재 開發 中에 있습니다. 현재로써 이것이 開發이 完了가 됐을 경우 매일 매일 課稅한 부분과 그 다음에 收納한 부분이 면밀히 對照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收納非理를 防止할 수 있도록 이렇게 措置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答辯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滯納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우리 本會議 市政質疑의 거의 단골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財務經濟委員會뿐만 아니라 전체 市議員들의 관

심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書面으로 滯納에 대한 現況, 그리고 高額滯納者들, 거기에 대한 現況을 별도로 提出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稅務指導課長 金煥吉;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洪奎 委員님 質疑事項 있으십니까?

○金洪奎 委員; 네.

○委員長 文錫珍; 質疑해 주십시오.

○金洪奎 委員; 金洪奎 委員입니다.

지금 朴南植 委員님께서 하신 말씀의 補充質疑로 우선 이 問題는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95年 7月末 현재 市稅 滯納額의 規模가 4,171件에 무려 4,038億원에 이르고 있는데, 1,000萬원 이상의 高額滯納 件數는 2,722件에 滯納額은 1,253億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7月末 현재. 그런데 이 滯納者에 대한 적극적인 徵收對策과 94年, 95年 滯納稅 徵收計劃에 대한 徵收實績은 어떠한지?

高額滯納者는 財産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強制徵收등을 적극 檢討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滯納을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方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한 滯納을 缺損處理하는 問題를 어느 누가 어느 部署에서 決定을 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缺損處理가 상당히 非理의 濫床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缺損處理를 公務員하고 滯納者하고 結託해서 많은 缺損處理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問題를 적어도 우리 서울市가, 수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서울市가 이런 것은 制度的으로 좀 막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缺損處理 過程을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로 결론을 내리는지? 이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問題입니다.

매년 移越額과 不用額, 歲計剩餘金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92年, 93年, 94年, 3年間 年度별 移越額, 不用額, 歲計剩餘金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매년 移越額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매년 不用額과 歲計剩餘金이 수조원에 이른다는 것은 豫算의 適正 編成과 使用에 중대한 問題點이 있다고 봅니다. 行政學者들이 얘기하기는 가장 걱정할 線이 10% 내외를 維持해야 가장 行政을 잘한다고 봐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問題에 대해서 어떠한 對策을 세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매년 지금까지 보면, 제가 速記錄을 봤습니다만 本會議와 常任委에서 議員의 質疑에 執行部側의 答辯內容이 항상 똑같은 內容을 반복하고 있고, 또한 資料要請을 해도 항상 급박하게 하루 전에 주는 것이 지금까지 통상례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問題를 이제는 制度的으로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市民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그러한 行政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次元에서 계속 그 동안 公務員 여러분들께서는 고생을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千百萬 서울市民을 代表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도 한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각을 잘 하셔서 서로 실질적인, 정말 필요한 時間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똑같은 이러한 質問과 答辯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봅니다. 이런 次元에서 확실한 우리 財務局長님의 意志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委員님, 書面으로 答辯…….」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하세요, 資料 없으면. 資料 없는 것은 書面으로 答辯해 주세요.

○財務局長 權五虎; 아까 委員長님께서 高額滯納者의 現況하고 그것을 提出하라고 하셔서 그 때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여기 저번에 高額滯納者 質問에 대해서 答辯資料를 만들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年 7月末 현재 年度別 市稅滯納額이 4,038億원인데, 이中 1,000萬원 이상 滯納額이 1,253億원으로, 件數로는 0.07%인데 실질적으로 金額으로는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億원 이상짜리를 뽑아보면, 江南區의 경우에 한조기업이라는 데 取得稅 55億원, 前 국제상사 대표 양정모씨 住民稅 52億원, 前 영신상호신용금고 대표 김일창이 住民稅 33億원, 명성이 住民稅 30億원, 길음개발 取得稅 27億원, 前 대한선주 대표 윤성민은 住民稅 25億원 등으로 이것이 대부분 廢業됐거나 破産됐거나 納稅를 지금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형편에, 또 訴訟이 提起되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명성이나 공영토건 같은 것은 지금 法定管理가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法定管理로 넘어가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이것 10件에 한 58億원 정도는 法定管理期間이 滿了되는 2004년까지는 年次的으로 徵收가 가능한 것도 있고, 김일창씨나 길음개발 등과 같이 訴訟中이거나 鑑査院이 審査請求 中인 것은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徵收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痼疾的이고 常習的인 高額滯納者는 名單公開 方法도 있고, 또 우리가 債權 確保가 가능한 것은 지금 전부 다 債權 確保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件數가 많기 때

문에 高額滯納者別로 擔當者를 전부 指定을 해서 그것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缺損處分 部分, 缺損處分은 徵收權者인 區廳長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缺損處分前에 滯納者의 財産, 所得, 居住地 및 職場 등을 5年間 監査해서 無財産일 경우에 時效消滅로 處分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缺損處分 그 額數에 不問하고 監査의 전체 對象이 되고 있어서 그 處理節次가 엄격하고 精確한 根據에 의해서만 決定하고 있으며, 실제 一線職員이 缺損處分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監査가 오면, 서울市 監査나 監査院 監査가 오면 이 缺損處分한 것을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의혹 때문에. 과거에 그런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財産이 없다 하면 그 財産이 없다 하는 객관적인 資料가 전부 붙어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職員들이 가급적이면 이것을 안합니다. 滯納額으로 그냥 가지고 있고, 사실상 받지도 못할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는 缺損處分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證據와 이런 것들을 전부 거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혹 개중에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처럼 監査에서 계속 그 부분을 파고 있기 때문에 그런 方法으로 그것을 確保를 하고 있고, 그 決定은 대부분 區廳長이 전부 決裁를 합니다. 밑에서 가지고 올라오면 係長, 課長, 局長이 전부 그것을 檢討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移越額과 歲計剩餘金 問題는, 94年度에는 移越額 1兆 761億원, 未執行額이 9,616億원, 한 11% 정도가……. 그것은 11%는 未執行額이기 때문에 그렇고, 93年度에는 移越

額이 6,524億원, 未執行額이 1兆 973億원, 또 92年度에는 移越額이 5,603億원, 그 다음 未執行額이 1兆 302億원,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金勝建 委員; 94年度 11%라는 것이 뭐 對比 11%예요?

○財務局長 權五虎; 總 豫算 對……. 아니, 저것만, 未執行額만 그렇습니다.

○金勝建 委員; 글썬, 지금 質疑한 것……. 숫자 計算이 지금 잘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同僚委員께서 보통 行政學者들이 10% 정도 外에서 不用額하고 移越額이 나온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하나만 빼서 對比를 해서 11%라고 그러면…….

○財務局長 權五虎;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잘못 答辯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金勝建 委員;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가 앉아 있어도, 지금 제가 이 速記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하면서 92年度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11%라고 그리고 會計課長도 옆에서 그러는데, 그것은 不用額이든지 移越額이든지 둘 中에 하나만 해서 對比해서 11% 나온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11%인가요? 아니, 여기 資料를 보시면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金勝建 委員; 지금 報告하는 事項에 대해서, 委員들이 指摘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答辯해 주셔야지, 지금 분명히 同僚委員께서……. 제가 理解하기로는 不用額하고 移越額하고 합쳐서 그것이 서울시 全 豫算의 10% 外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렇게 學者들이 指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質問하셨는데, 局長께서 答辯하실 때 92年度인지 93年度인지 그 하나를 얘기하시면서, 제가 생각할 때 전

부 다 하나가 1兆가 넘습니다. 不用額이 다 1兆가 넘습니다, 移越額이 6,000億원, 7,000億원 되면 언뜻 計算해도 1조 8,000億원, 2兆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 서울시 豫算이 얼마인 데요? 그 11%라는 말이 어떻게 計算이 나오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듣고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매년 移越額이 92年……. 지금 質問이 말이지요 92年, 93年, 94年度의 移越額과 不用額을 말씀을 해 달라고 하셔서 그것을 제가 불러드리는 것이고, 거기 아까 제가 11.2%라는 것은 제가 未執行額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 未執行額의 比率을 11.2% 그것을 불렀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까 10% 내외가 적당한데 실질적으로 20%가 넘게 지금 執行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잘못 됐다는 부분 제가 本會議에서도 答辯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된 理由를 그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移越額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事業計劃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事業計劃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豫算課에서 그것을, 豫算파트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 제가 종합적으로 豫算 쪽의 總 執行殘額이라는 決算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豫算파트에서 지금 금년에는 李海瓚 副市長님이 主宰를 해서 이것을 아주……. 會議를 두 번 세 번 거치면서 지금 이 豫算을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小委員會를 만들어서 그것을 運營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未執行額 부분이 있습니다.

未執行額의 부분이나 혹은 아까 計劃을 잘못해서 하는 부분

은 豫算파트가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工事部分에서 執行을 제 때 計劃대로 못해서 하는 計劃의 차질 때문에 오는 두 가지 要因이 있습니다. 그것은 計劃의 잘못은 예를 들어서, 특히 地下鐵 같은 것이 작년엔 8,000億원이 지금 미집행되고 넘어간 부분들이 바로 工期를 맞춰놓고 工期대로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理由는 예를 들면 補償이 늦어져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工事を 하다가 한 쪽이 무너져서 그렇다고 하는 理由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 主管局에서 전부 실질적으로 그것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審査分析이라는 것을, 그것도 企劃管理室에서 每月 하면서 工事が 늦어지는 부분은 왜 늦어지느냐? 法令 때문에 그러면 法令을 補完해주고, 豫算이 모자라면 豫算을 支援해주고 그렇게 지금 補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移越問題에 대해서는 우리가 集計만 하고 있지 여기에 실질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은 企劃管理室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指摘하신 바와 같이 本會議에서나 이런 데에서 資料를 늦게 주고 해서 저도 委員님들한테도 그렇고, 또 요새는 國政監査와 겹쳐서 國會에서도 상당한 많은 독촉을 받고 있으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우리 실질적으로 이것을 提出해야 될 係長님들이 뒤에 전부 계시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共同責任으로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빨리 성실한 答辯資料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저희가 企劃管理室을 통해서 質疑해야 될 事項들은 그 쪽에 나중에 懸案이 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資料提出에 대한 問題는 이번만의 問題가 아

니고 과거에도 行政監査에 대한 總評에도 나오고, 거의 매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됐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정말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희들 同僚委員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執行部에서도 資料에 대한 부분이나 또 저희들의 어떤 質疑에 대한 答辯을 하실 때에도 과거처럼 상투적으로 해서는 우리는 바로 지나가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強調를 해 드립니다.

다른 質疑事項 있으십니까?

(「補充質疑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할게요」하는 委員 있음)

네.

○金洪奎 委員; 방금 아까 缺損處理 問題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缺損處理는 市稅를 갖다가 區稅를 다루는 區廳에서 缺損處理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問題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局長님의 見解를 좀 밝혀 주시고, 그 問題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局長님 말씀대로 監査가 나오면 가장 먼저 缺損處理한 問題를 일일이 다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問題에 대해서는 그만큼 의혹이 간다는 問題입니다. 이런 問題인데, 어떻게 됐든 앞으로 缺損處理하는 問題를 市稅를 區에서 缺損을 處理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納得이 안 갑니다.

그리고 移越額과 不用金額이 항상 이십몇%가 넘어가는데, 그 問題에 대해서 방금 局長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그야말로 民選市長이 오셨고, 또 財政副市長까지, 李海瓚 副市長까지 動員해서 이런 問題는 없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會議를 하셨다니까 내년에 가서는 제발, 내년에 가서 이 자리에서 다시 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우리 하지 않도록 財務局長님께서 深思熟考하셔서 똑같은 答辯을 다시 반복하

지 양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金委員님께서 市의 市稅를 區廳長들에게 市條例로 전부 委任을 해서, 賦課徵收權을 전부다 거기다 委任을 해서 區廳長이 그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法에 의해서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市가 그러면 賦課徵收權을 전부 해 놓고 만약에 市가 缺損을 하자면 市가 전부 그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檢討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金委員님이나 저나 공감을 하면서, 이 方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問題는 현재 이 부분 때문에 서울市가 監査에 指摘이 되어서 缺損 안할 것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최근에는 그렇게 問題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定着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區廳에도 꼭 이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移越額이.

그래서 제가 城北에 副區廳長을 나가서 年末에 議會에 올라가서 議員님들한테 상당히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이놈을 한 10% 한번 줄여보자 하고 작정을 하고 副區廳長 事務室에다 工事現況板만 전부 붙여서, 지금 3個月마다 審査 分析을 하는데, 매월 그것을 받아서 늦어지는 理由, 그러니까 工程이 月別로 딱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狀態냐 하면 주로 工事部分이 많이 遲延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年末에 이것이 通過가 되면 1월에 土木課 職員들이 밤잠을 못자고 계속 設計를 해답니

다. 設計를 하면 빠르면 2月 中旬부터 그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3월에 그것이……. 그것이 또 告示期間이 있고, 그래서 告示가 되면 그 때부터 道路내는 경우에 測量을 전부 다 해야 합니다, 집까지. 測量하는 것이 또 한 달이 걸려요. 그런데 이 測量도 問題가 있는 것이, 각 區廳이 거의 동시에 發注를 하고 있기 때문에 測量技士, 測量 쪽이 또 모자랍니다, 市도 거기 같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면 이 工事が 언제부터, 빠르면 4月末, 5月, 늦게……. 제일 늦게 工事を 하면 한 8月 되어서부터 工事契約을 합니다. 그럼 그 때부터 補償이 들어가는데, 補償을 첫 번에 가서 補償協議를 하면 절대로 그것이 補償이 한번에 응해……. 적어도 다섯·여섯번을 가야 되는데, 제가 城北에 있을 때 그 期間을 최소로 短縮한 것이 두 달을 短縮을 했어요. 그럼 두 달을 하다 안 되면 裁決申請을 올립니다.

그러면 裁決申請이 서울시收用委員會에 가는 것도 있고 中央土地收用委員會에 가는 것도 있는데, 거기 가면 각 區廳에 것이 그 때 거기 다 모입니다. 한데 몰려서, 그 委員들이 우리 公務員들이 아니고 一般市民들을 委囑한 분들이라 이분들도 매일 會議를 못해서 이것이 거기서 한 두 달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거기 裁決申請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바로 집 뜯고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저사람들이 假處分 같은 것 해 놓으면 그 工事 끝날 때까지 손도 못대도록 됩니다. 그러면 그 期間 동안에 決裁申請을 받아가지고도 스스로 뜯도록 계속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 純期가 1年 內에 工事を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單年度 豫算을 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處理가 안 되는 그런 현실성이 있습니다. 해마다 市가 얻어맞고

있으면서도 거기 移越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계속 비슷비슷한 것이 바로 그런 問題입니다. 그래서 나는 區廳에 있을 때 豫算編成制度를 예를 들면 한 해는 補償만 딱 策定을 해서 그 해는 補償만 끝내고, 그 다음해에 가서 工事費를 넣어주면 이런 移越制度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問題도 豫算을 工事費에 몇십억 넣어주고, 工事費 몇억…….

예를 들면 補償費가 한 90% 되고 10%가 工事費인데, 90%를 왕창 넣어놓고 한 1年 넘어서 또 하면 그 90%의 工事費를 또 효율적으로 못쓰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制度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고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해 동안 그렇게 해 보니까 한 4.몇%, 5%를 못 줄였어요, 그렇게 난리를 쳐도. 하여튼 職員들이 저를 보고 욕을 할 정도로 했는데도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參考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鄭水華 委員님 먼저 申請하셔서 먼저 機會를 드리도록…….

鄭水華 委員님.

○鄭水華 委員; 금년 7月末 현재 歲入實績을 보면 報告하신 바대로 市稅收入面이나 稅外收入面에서 모두 超過達成을 하고 있습니다. 7月末 현재 期間 對比로 하자면 한 58% 目標인데 63.9% 해서 한 6% 정도, 稅外收入도 金額은 많지 않지만 18% 정도 이렇게 해서 76.5% 超過 徵收가 됐고, 그런 결과로 해서 금년 年末까지 가면 12.1% 超過徵收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金額的으로는 4,000億원에 가까운 3,896億원이 超過되는 것으로 展望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委員님들과 局長님이 檢討하신 대로 不用額과 移越額이 근 2兆원에 가깝게 올라감으로 해서 해마다, 아까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豫算次元에서 조금 잘못 됐고, 工事計劃이 조금 잘못 되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러한 豫算을 또 많이 해마다 세우다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市民 負擔이 늘어나겠습니다만 土地課標 引上이 가장 쉬운 方法으로 되어서 금년에 18.7% 引上을 平均적으로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稅金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課標와 稅率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가고 있는데, 稅率이야 지금까지는 정해진 것으로 있기 때문에 더 올리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다보면 土地課標 引上이 아주 손쉽게 얼마 얼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土地課標 引上하는데 어떠한 原則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96년부터는 公示地價로 하고 稅率을 어떻게 引下를 해서 한다는 計劃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計劃대로 推進이 되어서 과연 내년부터 그렇게 施行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상 不動産에 관련된 稅金들의 稅金 거둬들이는 課標가 不動産地方稅課標, 土地課標, 그것과 申告로 들어오는 檢印契約書, 이 두 가지를 比較해서 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檢印契約書는 한 30% 減免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法人과 去來된 內容은 실지 去來대로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檢印契約書, 法人 去來해서 제대로 稅金計算書가 끊어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은 稅金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실상 檢印契約書制度가 實施되고 있지만 개인들간에 하는 것을 보면, 제가 職業上으로도 많이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檢印契約書가 우선 仲介業者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仲介業者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 높을 경우에는 法務士에서

登録稅나 取得稅 申告할 적에 거기서 타자를 쳐서 줄여서 만 들어집니다. 그리고 檢印契約書 作成費로 해서 한 5萬원을 받는 그런 慣例로 되어, 그래서 檢印契約書를 使用해서 取得稅는 조금 줄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讓渡稅 申告를 하려고 보니까 取得價額이 낮을 때는 자기가 실제 契約한 그 契約書를 들이미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檢印契約書制度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우리 市나 區廳에서 接受를 받을 때에 실질적인 檢査를 제대로 해 줬으면 市稅 收入 確保次元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런 確認過程을 좀 진지하게 가져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公示地價가,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課標로 잡는다고 볼 때 이 公示地價 調査過程이라든가 調査過程에 動員되는 公務員이라든가 또는 日當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그때 그때 採用되는 그런 분들의 調査姿勢가 조금은 미흡해서 標準地라든가 公示地價 價格面에서 터무니 없이 調査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異議申請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一般市民들은 그것에 대한 異議申請 過程이라든가 閱覽過程이라든가 다 플래카드를 붙이고 알려주고 있지만,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稅金이 많이 賦課가 되면 그때 들고 나가서 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 가지 期間이 超過했기 때문에 損害만 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洞事務所에서 建設部와 協力을 해서 國稅廳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過程들이 洞에서 주로 많이 하더군요. 그것을 할 적에 時間的인 여유와 충분한 事前 素養知識을 周知시켜서 확실하게 해야지, 가보지도 않고 그냥 대중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公示地價와 土地課標, 檢印契約書, 이런 부분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稅收가

더 많이 確保되면 좋겠고, 市民의 負擔이 土地課標를 그냥 손쉽게 편리한 方法으로 그냥 利用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不動產仲介業者들에 대한 指導 監督 問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區廳에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네들 仲介業者들 名單을 좀 갖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참 찾아보더니 許可된 것 그런 書類만 있다고 그래요. 과연 市에서나 區廳에서 仲介業者들 登錄한다든가 휴·廢業한다든가 그때 그때 報告를 받아서 管理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그냥 電話로 해서 教育만 하고, 指導 監督만 하고 무슨 案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檢印契約書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脫稅를 방조하지 않는다는 次元에서 합리적으로 제대로 했는가? 그런 監督次元에서도 不動產仲介業者들에 대한 管理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稅務指導課長한테 한 번 여쭙봤었습니다만, 지금 6月에서 9月까지 OMR制度 3個 模範區廳, 陽川區廳, 冠岳區廳, 道峰, 세 군데 해서 지금 OMR制度를 實施하고 있지요. 그 때도…….

지난달인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判讀機를 안 놓고 있더라고요.

OMR 模範區廳을 하려면 그 問題點을 파악을 해서 判讀機에 어떤 問題點이 있고, 檢索過程에서 어떤 애로가 있다, 이런 施行的인 過程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좀 補完을 해야겠다든가 해서 내년부터 그것을 96년부터 施行을 하자고 보면 補完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래 걸리는 것인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아

직까지도……. 제가 이틀 전에 물어봤어요. 우리 동네 區廳 財務局長한테 물어봤는데 그것을 안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요.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빨리해서 더 도움이 되도록 施行을 못하나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지금 質疑事項 中에 여러 가지 당부말씀 포함해서 質疑를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答辯해 주시고, 그 다음 質疑받도록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鄭委員님께서 4,000億원 超過問題는, 사실 豫測이 조금……. 우리가 目標 對 豫測이 조금 빗나갑니다, 稅收를 해 보면.

그래서 금년에 取得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取得稅 去來가 사실 去來件數는 작년보다 줄었는데 去來面積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土地實名制 때문에 과거에 실제 去來가 아니고 借名으로 해 놓았던 것을 轉換하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런 豫見能力 부족 때문에 이런 問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土地課標의 引上 原則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政府의 新經濟 5個年計劃에 의해서 95年度까지 30% 내지 40%에 맞춰라 그러는 것이 政府指針이라서 全國적으로 그것을 매년 93年度부터 그것을 나누어서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全國이 31.6%인데 서울이 29.몇%로 全國에는 조금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公聽會 때 가보니까 어떤 郡은, 英陽郡 같은 데는 課標의 現實化率이 지금 50%까지 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狀態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內務部 쪽의 課標 引上方針에 의해서 新經濟 5個年計劃을 기준으로 올려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土地課標 問題를 내년도부터 公示地價로 하는 問題를 저번 公聽會에 저도 討論者로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第1案이 현재 公示地價에다 課標率을 현재 全國 平均인 31.6% 정도로 하는 案이 第1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課標를 50%로 하고 稅率을 내리는 案, 그 다음에 公示地價를 課標 100%로 하고 稅率을 내리는 案, 그래서 전체 4個 案을 가지고 지금 檢討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全般的인 부분은 稅率의 調整이라든지 이것을 해 놓으면 매년 그러면 法을 改正해야 되는 그런 問題도 있기 때문에 內務部 쪽 意見은 課標 現實化率을 예를 들면 31.6%로 정해 놓고, 거기서 몇% 정도를 地方議會의 承認을 받아서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쪽의 案이 지배적으로 檢討가 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우리가 별도로 課標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해서 몇%가 課標로 策定이 되는 것은 틀림없이 되는데, 그것을 몇%로 할 것이냐 그러는 부분은 아직 확정인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課標와 檢印契約書의 問題는 아까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복덕방이라든지 稅務士들이 이것을 調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현재 우리 쪽의, 서울市の 가장 問題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A라는 사람이 사면 얼마, B라는 사람이 사면 얼마, 그래서 이런 問題點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問題點을 지금 建議 中에 있고, 土地部分에 대해서는 바로 이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內務部에서도 지금 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建物에 관한 問題는, 日本의 경우는 建物을 전부 鑑定士들이 鑑定을 해서 그 價格에 의해서 전부 賦課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것을 만약에 適用을 하게 되면 그 鑑定費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 우리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課標率이 당분간은 그냥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問題點을 알면서도 法人들의 實去來價格에 의해서 稅金을 물어야 된다 하는 그런 基本原則 때문에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問題點으로 認識을 하고 계속 檢討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土地 公示地價 決定 問題를 말씀을 드리면, 그 날 公聽會 때도 學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公示地價의 적정성 問題, 그 다음에 이 公示地價를 決定하는 公務員의 資質問題에 대해서 상당한 討論이 있었습니다. 현재 基本的으로 그 公示地價를, 基準地價를 決定하는 사람들은 專門家인 鑑定士들이 전부 해 놓으면, 그것을 根據로 해서 지금 거기 倍率 適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公務員들이 하고, 臨時職員들은 調査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서, 지금까지 指針 자체도 建設部指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올 國會에서 그것을 法令으로 만들어서 法制化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推進을 하고 있어서, 이 制度 定着의 問題는 建設部가 基本的으로 계속 補完을 해 나가면서 建設部指針에 의해서 全國적으로 補完이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뭘 하기에는 技術的인 問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土地의 倍率問題라든지 土地의 모양에 따라서 價格을 하는 問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措置를 해서 補完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不動產仲介業者는 아까 말씀한 대로 休·廢業者 管理는 이것을 현재 法的으로도 休業을 하거나 廢業을 할 때 申

告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管理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申告를 안하고 문을 닫아버리겠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전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복덕방에 대한 問題가 民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철저히 調査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監督機能을 아까 報告에서처럼 계속해서 補完을 해서 監督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MR告知書制度는 96年 1월부터 所得稅割, 住民稅, 事業所稅, 免許稅 隨時分에 대하여 適用할 計劃으로 있는데, 현재 示範運營 中인 3個 區廳에는 判讀機를 購入을 해서 금년 10月 中에 判讀機를 전부 備置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擔當職員과 收納機關에 대해서 OMR處理에 대한 教育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施行을 할 때는 완전히 다 갖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答辯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信浩 委員님, 먼저 質疑해 주십시오.

○金信浩 委員; 아까 金洪奎 委員께서 質疑하신 內容의 補充 質疑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아까 缺損處理를 서울시에서 區廳에 委任해서, 條例로 委任을 해서 缺損處理를 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에 완전히 區廳長의 自由裁量에 맡겨서 缺損處理를 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缺損處理를 하는데 어떠한 處理指針을 示達하고 있는지? 示達하고 있다면 그러한 內容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를 한 번 內容을 간단하게라도 좀 나열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指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持參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指針…….

○金信浩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指針이 없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缺損處理를 했는지 구체적인 事項을 한 몇 가지만 나열을…….

○財務局長 權五虎; 예를 들면 재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財産이 없는 경우에는 그 洞長의 確認書, 그 다음에 稅務署의 確認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 붙어서 그 사람이 破産을 했다 하는 그런……. 예를 들면 警察官署의 確認까지 전부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行方不明者 쪽이 또 있습니다. 行方不明, 사람을 전혀 찾지 못할 경우에, 이것은 한 10年 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그것이 5년에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에 缺損處理를 못합니다, 아까 그런 의혹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10년까지도 가지고 있는……. 5년이 期限인데 5년이 넘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缺損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缺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確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을 때 處理를 하도록 그런 指針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 指針은 별도로 제가 金委員님한테 한 部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金洪奎 委員님한테도 같이 그 指針을 한 部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보내 주셔야지…….」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관심이 있으신 다른 委員께도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알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黃仁明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黃仁明 委員; 黃仁明입니다.

稅金 얘기를 안하고 다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전을 보니까 새마을協議會 會員들이 鐘路3街 公園에서인가 꺾기대회를 하고 일부는 수백대 車輪을 가지고 대포 포 쏘는 식으로 연막차를 가지고 서울市廳을 빙빙 돌면서 示威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서울市에서 아주 勇斷을 내려 決定한 새마을旗 下降問題, 그 問題 때문에 抗議示威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官邊團體가 高壓的인 자세로 行政府를 威壓해도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原則的으로 우리 國民會議와 民主黨 등 野黨은 각 官公署 廳舍에 入住해 있는 官邊團體를 현재 無償賃貸에서 有償賃貸로 轉換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賃貸를 解除해서 그 廳舍 空間을 다른 市 團體 用途로 쓰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엇그제 市政質疑에서 아마 梁敬淑 委員인가 質疑하셨는데, 우리 財務局長이 答辯하신 內容 中에서 이런 內容이 있습니다. 官邊團體를 나가라고 그러면 다 가난한데 이런 團體에서 반발하면 어찌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政府에서는 내년도 豫算의 약 한 40億원을, 官邊團體에 支援하는 豫算을 野黨의 반대에 무릅쓰고 編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局長님의 見解를 듣고 싶고요.

지난 8月 業務報告를 한 中에 이런 內容이 나옵니다. 空軍本部 敷地를 賣却을 했는데, 거기에 가난하다는 새마을協議會도 賣却을 했습니다. 어떤 理由에서 賣却을 했으며, 隨意契約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公開競爭入札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實力行使를 하니까 마지못해 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答辯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첫째, 官邊團體 有償, 無償 그 問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時代的으로 볼 때 官公署를 利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마을 團體도 市政에 協助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團體들이 상당히 市政에 지금 協助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消費者保護團體들, YWCA, YMCA, 제가 保社局長을 할 때는 거기 과거에 在野 團體에서 政府하고 얘기도 안하던 團體들이 돈 한 푼도 안 받고 와서 우리 團束할 때도 같이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돈 支援을 要請을 하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새마을의 功過는 우리가 간과를 할 수 없지만, 그 功過 때문에 지금도 廳舍를 주고 이렇게 한다면 현재에 그럼 市에 協助하고 있는 民間團體들도 같이 그런 待遇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趣旨에서 政府廳舍나 이런 데에서 소위 自立을 하지 아니하고 政府에 의지해서 이런 團體를 運營해야 되는 것은 이제는 時代에 안 맞고, 또 政府도 그것을 支援을 안하겠다는 것을 표명을 했고, 이번에 豫算을 編成을 하는데도 團體에 과거에는 團體運營費를 줍니다.

거기 事務長의 月給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 이러한 事業을 할 때, 예를 들면 淸掃……. 무슨 캠페인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플래카드 費用이라든지 그 事業費用의 일부를 擔當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個人的이라고 자꾸 答辯을 하다가 問題가 있는데, 財務局長으로서 答辯은 이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業務에 대해서 계속 推進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區廳에 있을 때도 이것을 상당히 深度있게 檢討를 했는데, 거기 보면 제일 어려운 團體가 未亡人會, 戰歿軍警遺族會, 그러니까 報勳 4團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거기 아마 區廳마다 전부 오래도록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自立해서 어디 뭘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기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현재 區廳의 財産은 區廳의 부분이니까 區廳이 적극 그것을 推進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市의 부분도 이제 主管局에서 하도록 강력하게 推進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空軍大學 敷地를 새마을市支部에 賣却해서 隨意契約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95年…….

○梁敬淑 委員; 지난번에 財務局에서 우리 委員會에 95年度에 賣却하겠다고…….

○財務局長 權五虎; 아, 저번에 引受한 것이 아니고 새로 지금 할 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梁敬淑 委員; 市有財産을 賣却하겠다고 그 때 우리한테 報告…….

○財務局長 權五虎; 아, 그것은 새로…….

○黃仁明 委員; 지난번에 報告하실 때 1萬坪 中에 새마을協議會에도 賣却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그래서 95년末에 우리가 引受할 예정으로 지금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活用計劃을 보면 學校敷地, 氣象廳, 銅雀區民會館, 새마을支部 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隨意契約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地方財政法과 새마을運動育成法에 보면 隨意契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지금 推進을 하고 있습니다.

○李延義 委員; 지금 質問의 要旨를 좀 알고 다시 한 번 答辯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財務局長께서 지난번에 報告할 때에 열악한 團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열악한 團體가, 이런 敷地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는 團體가 어떻게 열악하냐? 質問의 要旨가 바로 그것 같습니다, 지금. 質問의 要旨가. 이 열악한 團體들에게 혜택을 줄 수 뿐이 없다라는 要旨라면 어떻게 이 열악한 團體가 이런 敷地를 사들일 수 있을 만큼 이런 團體가 어떻게 열악하냐라는 質問의 要旨에 答辯을 要求한 것 같습니다.

(「제가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네.

○梁敬淑 委員; 이와 관련한 것인데요, 지난 번에 財務局에서 우리 常任委員會에 報告를 하실 때…….

○財務局長 權五虎; 무슨 委員會요?

○梁敬淑 委員; 財務局에서 우리 委員會에 報告를 하실 때에 市 所有財産 中에 1萬餘 坪 정도를 새마을協議會 등등에 賣却을 하겠다라고 報告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에 賣却을 했는지? 1萬坪 정도를 賣却하겠다 그랬는데 그 中에 몇 坪 정도를 새마을에 賣却을 했는지? 또 새마을이나 이런 官邊團體들이 가난하다라고 그러면서, 다 내보내라는 要求에 대해서 내보내기가 힘들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새마을 같은 데는 市 땅을 많은 부분을 사들일 정도의 計劃을 잡고 있던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答辯을 要求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協議會에서 市 所有 땅을 사들이기로 했는데, 그것을 몇 坪이나, 얼마만큼 지금 進陟이 됐는지, 얼마를 주고 사갔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基本的으로 새마을이 市支部, 서울 市支會의 問題인데, 지금 우리 것들을 전부 占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울 市支會도 있지만 각 區支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려고 그러는 부분은 현재 1萬坪 中에 400 坪으로 지금 豫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판 것은 아니고 당초에 이 公園計劃을 하면서 여기 땅 用途를 靑少年聯盟, 綜合體育센터로 이렇게 區分해 놓고 있는 狀態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한테 買入申請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들어오면 그럴 豫정으로 지금 推進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團體가 어떻게 이 땅을 사느냐의 問題는 그 團體의 問題이기 때문에 제가 答辯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돈 있는 團體니까 빨리 나가라 이런 얘기신 것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우리도 아주 적극적으로 推進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黃仁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李亮漢 委員님도 동시에 한 마디 하신다고 하니까요…….

○李亮漢 委員;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文錫珍; 아, 다른 얘기입니까?

○李亮漢 委員; 다른 얘기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네.

○李亮漢 委員; 6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賦課件數가 年間

5,800萬件입니다. 지금 78年度 12月 6日字 地方稅法 第51條 第2項에 보면 모든 書類는 公示送達로 하되 登記化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5年 前에는, 78年度인 17年前에는 그냥 郵便으로 하면 곤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郵便制度 자체가 130원짜리를 붙여도 충분히 잘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制度上으로 보면 年間 서울시가 580億이라는, 1,000원씩 부치면 580億원이라는 돈으로 送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원짜리를 붙인다 그러면 한 50億원으로서 보낼 수 있고, 나머지 500億원을 우리가 收入으로, 豫算이 節減이 되는 것으로 思料됩니다. 地方稅法 第51條에 兪대이지 아니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稅收를 많이 거두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節減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각 區廳에서 送達이 잘 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 確認問題가 있다 그러면 40원짜리 電話 한 通話만 하면 우리가 170원의 原價를 들이고 1,000원 이상의 送達費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울시의 500億원 豫算을 줄이는 데 한 分野라고 생각하는데, 이 分野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內務部에 建議해서 줄일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件 말고는 아까 局長님께서 서울시의 資金運用을 위해서 한 사람 정도 쓴다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1個 係 정도는 있어야 7兆를 움직이고, 4兆를 움직이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아까 각 局하고 連繫가 된다 그러면 이왕이면 하실 바에야 會計課長 밑에 1個 係를, 資金運用係를 新設해서 합당한 運營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思考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두 가지 事項에 대해서 答辯 부탁드립니다

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현재 이 告知書 送達은 전부 登記로 하는…….

○李亮漢 委員; 하기도 하고 交付도 합니다, 洞에 주고 交付도 하는데, 原則은…….

○財務局長 權五虎; 그러니까 현재 한 80% 정도를 전부 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定期分은 거의 다 사람이 하고 있고…….

○李亮漢 委員; 그것이 問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왜 問題가 되느냐 하면, 投票用紙 보내고, 내가 公務員으로서 내가 告知書 나누어 주는 사람이냐, 못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마인드입니다. 公務員 月給 쥐가면서 동네 다니면서 告知書 나누어 주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公務員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금 현재 公務員의……. 末端 洞職員인 公務員의 생각입니다. 절대 부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간다 얘기지요.

○財務局長 權五虎; 그래서 지금 현재 事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0%를 하고, 隨時分 告知書는 登記 郵便送達을 하는데, 제가 城北區廳에 가니까 登記로 안 부쳐요. 그래서 너 왜 안 붙이느냐? 登記로 부치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한 서너 번 가다 못돌리면 返戻 딱 해요. 그런데 一般郵便을 딱 붙이면 문에 갖다 넣어버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城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이……. 다음에 告知書를 못받았을 경우의 問題 때문에 이런 問題가 있습니다만, 이제 얘기도 法的으로 다음에 내가 告知書 못받았다 그럴 때 그 證據를 確

保하기 위해서 지금 登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檢討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아까 그 500億원이라고 그러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 告知書를 전부 登記로 부쳤을 때는 그런데, 현재 80%밖에…….

○李亮漢 委員; 法的으로는 다 부쳐요.

○財務局長 權五虎; 80%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一般郵便으로 했을 때는, 전체를 一般郵便으로 했을 때는 상당수가 告知書를 못받았다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確保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직접 公務員을 動員하거나 아니면 登記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洞職員의 行態問題는 심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城北區廳에 있을 때 너 그런 것 하려고 지금 人員을 전부 策定해 놓았는데 그것 안하냐 이거예요. 너 그러면 職場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動員된 것은, 崔市長님이 洞에 전부 訪問해 보니까 洞職員들이 전부 그것을 建議를 하니까 이제 動員하는 業務 이런 것 안시키겠다고 市長指示로 딱 내려 왔어요. 그래서 區廳에서 그러니까 자, 아침에 清掃 動員도 안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洞의 業務는 앞서서 페이퍼 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독려도 하고 團束하고 이런 人力들이 전부 策定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그런 것을 안하려면 그것은 用役을 전부 쥐버리고 公務員들은 앞서서 이것만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洞에 대한 政策方向이 안 서는 한 이런 것은 좀 해야 됩니다.

○李亮漢 委員; 그럼 法을 고쳐야 된다고요.

○財務局長 權五虎; 法보다는 制度를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運營을 할 때……. 洞事務所 없애자는 얘기를 本會議에서 했거든요. 저도 그것을 한번 檢討를 해 봤습니다. 과연 洞事務所를 왜 뒤야 되느냐의 問題도 상당히 신중하게 檢討를 하고, 어디다 用役까지 주려고 그러다 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檢討할 사항이고, 현재로는…….

○李亮漢 委員; 統廢合 가능하잖아요, 洞事務所…….

○財務局長 權五虎;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勝子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金勝子委員; 특별한 事案은 아니고요,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것을 細部的으로 알고 싶어서 問議하고자 합니다.

아까 局長님께서 地下鐵 不用額이 8,000億원이고, 그 다음에 7,000億원은 市 保有財産賣却代金이라고 하셨는데, 7,000億원의 財産을 賣却하고도, 또 페이지 10에 보면 稅外收入增加要因으로 財産 賃貸收入이 146.4%가 增加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質問이 있어요.

7,000億원을 賣却하고도 또 財産 賃貸收入이 146.4%라면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數値와 細部的인 面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同僚委員께서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막 手記로 써서 지저분하게 제대로 알아볼 수 없게 資料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을 電算化하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점진적 電算體制 構築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점진적 電算體制 構築이라는 말, 조금 막연하게 들리네요. 좀 細部的으로 언제 電算체제 構築을 完了하고 하는 計劃이 서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여러분 同僚委員께서指摘하셨지만, 主事 1 人の 판단하에 서울시의 막대한 財産을 運用하는데, 그것은 너무 力不足이라고 생각하고, 非科學的이고 無責任한 行政의 一端을 보는 것 같아서 本委員은 정말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財務局長님의 意見을 듣고 싶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市の 財産 販賣를 그렇게 팔고도 146%가 增加를 했다 그런 말씀…….

○金勝子 委員; 아, 賃貸收入.

○財務局長 權五虎; 네, 賃貸收入이…….

○金勝子 委員; 네.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市가 賃貸를 하고 있는 財産은 극히 일부입니다, 조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計劃을, 예를 들어서 올해 賃貸收入이 얼마 되었다는 것에서 얼마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까 그 땅을 많이 팔았다 하는 것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理解를 해 주시고, 電算化의 점진적인 問題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얘기한 것은 지금 電算化……. 아까 手記로 쓰던 것은 컴퓨터化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電算化를 段階로 한다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지금 우리가 電算化되어 있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이 좀 舊式이 되어서 현실에 안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전체 電算化가 收納까지 전부 하나의 體系로 안 되어 있는 部分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補完을 하기 위해서 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手記로 했다는 부분은 지금 제가 說明하는 이것 말

고 그것은 一般行政의 電算化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稅務行政의 件은 제가 올 年末까지 일단은 檢討를 해서 專門機關에 언제쯤 이것을 다할 수 있는지, 소프트웨어 開發이라든지 機械의 補完이라든지 이런 資料들을 전부 檢討해서 의회에 한번 日程別로 報告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一般行政의 電算化는 職員이 혼자 알아서도 아까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고, 電算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計劃보다는 점진적으로 補完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行政事務의 問題입니다.

그 다음에 主事 1人的 판단하에서, 그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資料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 財産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1年짜리가 지금 한……. 6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書類로 그런 資料를 여러분들한테 提出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說明한 부분들이 口頭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支出計劃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收入計劃이, 우리가 별도로 몇월말에 얼마 들어오고 하는 것은 收入計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根據로 다만, 오늘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이것은 몇월 며칠字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書面으로 그것을 못 남겨둔 데에는, 아까 제가 바로 科學的으로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擔當職員이 이제 그런 것들을 勘案을 해서 預置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問題가 利率을 얼마를 낮추어 했다 하는 것은 問題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資金管理를 아까 주먹구구식으로 함으로써 1年짜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6

個月이나 3個月로 해서 엄청난 利子를 못들어오게 한 그런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李亮漢 委員님께서서는 1係 정도를 얘기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專門家 한 사람이 필요하면 한 사람, 뭐 저는 한 사람이 전체 들어온 이 資料만 전부 가지고 혼자 앉아 컴퓨터를 하면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專門家냐의 問題이지 여러 사람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答辯을 드렸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안 되고 係가 필요하다면, 사실 여기에서 나온 利益이 係 運營하는 利益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가능하시면 質疑를 이제 좀 줄여서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延義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李延義 委員; 지금 財務局 所有로 되어 있는 市有財産 雜種地 즉, 一般會計에 해당하는 雜種地를 財務局에서 管理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財務局에서 管理하고 있는 이 雜種地 뿐이 아니라 替費地, 河川敷地, 道路敷地, 市有地 등 각종 市有財産이 서울시 全般的으로 管理가 엉망인데, 이 財産을 아까 賃貸收入이라든가 여러 가지 管理次元에서 稅收를 얼마든지 增大시킬 수 있고, 稅收뿐이 아니라 우리 市民生活에 嫌惡를 주고 있는 嫌惡施設物들, 특히 고물이라든가 建築資材라든가 여러 가지……. 힘 있고, 백 있고 또는 無法을 主張하는 사람들이 現場을 아주 無斷占有해서 심지어는 거기에 이제 개인 땅처럼 賃貸까지, 자기들이 賃貸까지 놔먹고 있는

상태의 市有財産들이 지금 管理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財産임에도 불구하고 각 特別會計에 의해 각 局에서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財産을 管理하고 있어서 막대한 稅收의 損失도 올뿐더러 이것을 管理狀態가 잘못 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것을 잘 管理해서 造景을 한다든가 또는 市가, 財務局이 제대로 종합 管理해서 정상적인 賃貸에 의해서 어떠한 管理를 할 수 있도록 稅收을 增大하는 次元에서 管理한다면 상당한 稅收가 增大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財務局에서 管理하고 있는 雜種地 外에 特別會計 管理하고 있는 市有財産, 그러니까 체비지라든가 河川敷地 또는 市有地, 道路부지 이런 것들이 管理 내지는 賃貸 가능하고, 管理할 수 있고, 또는 앞으로 賣却 가능한 이렇나 것들을 종합하는 그런 管理體系를 財務局에서 가져왔으면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財産을 파악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財務局 所有 件만 했는데, 이 現況을 地番, 地籍, 地目, 管理狀態, 현재 無斷占有하고 있는 狀態까지 정확하게 해서 資料를 提出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答辯은 제가 듣지 않고, 여기에 대한 代案까지 해서 書面으로 報告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有關部署, 예를 들면 消防官署가 市有財産을 管理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放鶴洞에 엄청난 땅을 무슨 教育用으로 쓰고 있는 정도, 불합리하게 使用되고 있는 이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關聯部署가 가지고 있는, 有關官署가 서울시 財産을 所有하고 있으면서 정말 用途 이외에 無斷으로, 사실상 필요가 없는 땅을 占有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직접 還收해서 管理할 수 있는 그런 對象土地까지 좀 종합적으로 書面으로 報告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補充質疑 하나 할게요」하는 委員 있음)

○金相男 委員; 조금 전에 李延義 委員께서 質問하신 데 대한 補充質疑인데요, 그전에 財務局 報告 때 앞으로 市有地를 賣却을 안하는 方向으로 하고, 앞으로 使用度라든가 효율적인 運營을 強化하겠다는 意味에서 금년도에 200餘 군데를 公開入札에 의해서 駐車場이라든가 또는 테니스장, 그 다음에 각종 保管施設이라든가 이런 데로, 永久施設이 아닌 그런 臨時施設로서 한 200餘 군데를 用途를 정해서 公開入札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한 明細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市有財産 부분에 대한 問題는 저희가 市金庫나 아니면 農水産物市場에 있어서 農安基金 問題처럼 중요한 事案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分析해야 될 事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모든 問題를 한꺼번에 調査하고 研究하고 討議하기에는 物理적으로 限界가 있기 때문에 市有財産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李延義 委員님이 지금 要求하신 事項, 그리고 金相男 委員님의 質疑하신 事項을 포함해서 다음 臨時會 때 市有財産 現況에 대해서 전체 委員들에게 앞으로의 管理方向이라든지 財務局에 대한 代案도 우리 委員會에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問題를 지금 당장은 다룰 수는 없지만 앞으로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일정하게 저희가 研究할 時間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現況에 대한 資料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분명히 다음 臨時會 때는 財務局의 懸案報告와 함께 그 資料를 저희에게 전부 配布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處理해야 될 다른 事項들이 있기 때문에 質疑事項이 있으시더라도 書面으로 대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形式的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용

서하십시오.

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財務局 業務報告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7時 57分)

○委員長 文錫珍;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먼저 서울 特別市長을 代理해서 財務局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의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議案番號 第84號로 第80回 市議會 臨時會에 上程된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서 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提案背景을 말씀드리면, 中小企業의 工場立地難을 解消하고 中小企業의 活性化를 위하여 아파트型工場을 건축하는 자와 신축된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는 중소기업자에게 세제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는 자가 건축한 아파트형공장과 아파트형공장을 建築하기 위하여 取得한 土地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減免하여,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中小企業者가 아파트型工場을 建築한 者로부터 최초로

分讓받아 取得하는 아파트 形工場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려는 것입니다.

參考로 아파트型工場 現況 및 向後 建築計劃을 말씀드리면, 既存 아파트型工場은 總 10個 棟 176個 公장이 있으며, 현재 건축중인 아파트형공장은 總10개동 276개 工場인바, 95年 竣工豫定이 3個 棟 61個 工場, 96年 竣工豫定이 3個 棟 118個 工場, 97年 4個 棟 97個 工場입니다. 따라서 減免時點은 95年 이후에 竣工되는 아파트型工場으로부터 減免 혜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되면 95年度에 지금 竣工된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期待效果를 말씀을 드리면, 中小企業者의 工場立地難을 解消하고, 都市型工場을 都市 內에 합리적으로 收容할 수 있기 때문에 中小企業 工場을 集團化하여 都市機能의 改善效果를 가져오고, 遊休 勞動力의 흡수로 地域經濟發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文錫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錫洙; 專門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報告書 2쪽이 되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의 主要內容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關한法律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의 設立申告 또는 建築許可를 받은 자가 分讓 또는 賃貸를 目的으로 建築한 아파트型工場 및 아파트型工場을 建築하기 위하여 取得한 土地에 대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가 아파트型工場 設立者로부터 최초

로 分讓받아 取得하는 아파트型工場에 대하여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交通·環境問題 등 서울시 懸案問題를 處理하기 위하여 서울시 財政擴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時期에 각종 市稅를 減免하여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아파트型工場 設立者와 아파트型工場 設立者로부터 최초로 分讓받은 中小企業者의 工場立地難을 解消하고, 都市型 工場의 收容과 中小企業 工場의 集團的 配置를 통한 都市整備 改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委員 여러분의 質疑와 執行部の 答辯 순서가 되겠습니다.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亮漢 委員; 李亮漢 委員입니다.

法은, 稅法은 가능하면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우리 韓國 稅法은 條例……. 規制나 緩和를 위해서 많은 稅法의 特例法을 자꾸 둡니다.

이 特例法이 있기 때문에 선량한 國民들이 被害를 입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工場用 아파트를 지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入住를 했을 때 建設業者도 減免해 주고 入住者도 減免해 주자는 얘기는 中小企業者가 原價를 싼 原價로써 쉽게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建設原價를 정할 때 우리가 아파

트, 庶民住宅아파트를 지을 때처럼 125萬원이면 125萬원, 150萬원을 정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우는. 建設業者에게 減免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돈 받을 돈 다 받고 줄 돈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促進을 한다는 하나의 美名下이지 실제 그 사람들에게 中小企業을 위해서 까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또 이 法の 衡平이 또 하나 틀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住宅建設促進法 減免條項 第6障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建設業者에게는 減免을 해 줍니다. 60m²에서 40m²까지는 50%를 減免해 주고, 45m²이하는 100% 減免을 해 줍니다. 法이 衡平도 맞지 않습니다. 왜, 까주려고 그러면, 減免을 해주려고 그러면 庶民을 감면……. 다수의 庶民을 減免해 주고, 入住하는 사람을 減免해 줘야 되지 建設業者에게는 減免을 해 주고 우리가 住宅法……. 40m²에서 60m²사이는 50% 減免해 주면서 이것은, 建設業者에게 안받고, 中小企業體도 안받는다 것은 專門委員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뭐냐 그러면 環境하고 交通에는 막대한 支障이 있습니다, 지금 專門委員이 얘기 하다시피.

이런 것을 감수해 가면서 都市 內에 問題가 있고, 서울시 人口 팽창에도 問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目的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 동네 사는 사람이 그 동네의 勞動力을 수월하게 供給하겠다는 그 효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周邊都市로 發達시켜서 거기에 나가서 아파트 型工場을 지어줘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시에 자꾸 工場을 誘致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도 않고, 또 取得稅나 登錄稅 안받고 區稅인 財産稅도 5年씩 減免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都市 內에 아파트型工場만

짓겠다는 한 目的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과세를 해야 된다. 왜, 서울시 재정도 모자라면서 굳이 꼭 감면을 해 줘가면서 저희들이 유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과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세율 정도는 課稅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補充質疑하겠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마저 質疑를 받고 答辯 듣도록 하겠습니다.

○盧載東 委員; 盧載東 委員입니다.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關한法律이라 中小企業基本法 같은 것을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 아파트型工場에 入住하는 工場 營業業種, 이것은 대충 分類가 되어 있습니까? 왜 묻느냐 하면, 環境汚染이나 아니면 污水排出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都市에서 더 問題點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業種이 되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財務局長 權五虎; 이것이 都市型 業種, 都市型 工場 그러는 것이 工業配置法에 들어……. 이것은 都市에서 公害를 덜 일으키고 할 수 있는 工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죽 제품 製造業, 出版·印刷業, 電氣器具 製造業, 電子製品 製造業 등 非公害業種으로 그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李亮漢 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法에서 이미 상당히 排除를 해 놓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李延義 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그 다음…….

○李延義 委員; 이 案 中에서 지금 目的이 中小企業을 育成하는 次元은, 이것은 國家的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入住者 中小企業의 取

得稅, 登錄稅를 減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本委員은 思料되나, 말씀대로 建築許可를 받은 자가 分讓 또는 賃貸를 目的으로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받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자기 利益과 營利를 100%로 取得하고, 그것은 中小企業으로 될 수가 없다고 本委員은 생각되어서, 이 案 中에서 建築許可를 받은 자가 分讓 또는 賃貸를 目的으로 한 이 內容은 減免對象에서 削除하고, 入住를 하는 최초의 入住者에게 取得稅, 登錄稅를 減免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同意를 하는 것으로 本委員이 意見 提示합니다.

(「저도 하나 좀……」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네, 修正動議를 받기 전에 다른 委員님들 意見을…….

(「質問을 좀 하고 말이지요」하는 委員 있음)

네, 질문을 좀더 받겠습니다.

○金相男 委員; 먼저 확실하게 이 內容을 알고 나서 저희들이 論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賃貸業者는 資格制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로 團體라든가, 營利目的보다도……. 지금 여기 보면 賃貸業者에 대해서도 減免해 주고 최초 分讓받은 사람한테도 減免해 주는데, 이 賃貸 아파트型工場을 짓는 業者에 대한 資格制限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알려 주시면 좋……. 왜냐하면 지금 李延義 委員께서 質問하신 그 內容은 建築業者가 營利目的으로 賃貸하는 데도 그것은 免除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賃貸業者들이 주로 社會團體라든가 그런 營利性을 안 띠 團體가 대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內容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勝建 委員님, 같이 質疑해 주십시오.

○金勝建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 中에 局長님이 정확히……. 同僚委員인 盧載東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것에, 과연 그럼 그 中小企業의 工場 種類나 이런 것들을 알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시면서 環境이나 그런 問題에 별로 影響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과연 지금 그렇게 정말로 알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그냥 편의상 答辯하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金勝建 委員;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品目 中에 하나가 가족이나 피혁이나 이런 말씀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 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있는 地域區에 상당부분 있습니다.

상당부분이 있는데, 地域住民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한 事項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피혁은요. 그리고 지금 그것의 功過를 따지기 전에 條例改正案을 내놓는데 條例改正案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企劃管理室에, 지난번에 第79回 臨時會 때도 저희가 改正案을 한번 保留, 審議 延期를 시킨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제 생각이라면, 제가 만약에 이 條例改正案을 通過를 시켜달라는 執行部 立場이라면 이 改正條例案을 가져오면서 이것에 대한……. 이것을 補充할 수 있는 資料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要求하지 않아도 여기에 해당되는 職種이 뭐 뭐며, 예상되는 工場 數가 얼마이며, 그 다음에 그 面積이 어떻게 되고, 주로 어느 地域에, 제가 보기에 서울 都心地 地域의 自治區가 아니고 서울 外廓地에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상되는 區가 어디이며, 이것에 대한 것이 있어서 와서 이렇기 때문에 經濟的 利得이 어떤 發生될 수 있는 社會的 損失보다 큼니다. 그래서 서울시 立場에서는 通過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단지 이것 하나가져 왔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質疑 中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資料가 예전에 저희 本會議 時 아마 놓여진 資料 이런 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복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資料를 여러분 議席에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勝建 委員; 그러면 제……. 委員 불찰이든 어찌됐든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 意見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것을 通過시킨다는 것은 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 改正條例案에 대해서 審議 延期를 要請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일단 두 분 意見이 條正動議도 한 분 계셨고 또 保留하자는 動議도 계셨는데요. 일단 더 質疑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나서 條正動議나 保留動議에 대해서 執行部에서의 意見도 다시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님들 있으면 質疑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이런 條正動議 내지는 保留動議가 들어와 있는데 執行部에서 우선 質疑하신 內容에 대한 答辯과 그리고 저희가 條正動議를 하게 되면, 또 아니면 保留하자는 動議가 왔는데 保留하게 되면 어떤 問題點이 있는지 執行部の 見解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權五虎; 먼저 서울시 工場의 需給問題입니다. 지금 無許可 工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地域의 制限 혹은 法律의 制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金勝建 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入住 周邊에, 그 工場이 들어 왔을 때 그 周邊의 住民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이 工場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李亮漢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市에는 이 工場이 필요 없느냐 있느냐의 問題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論議가 되어야 이 問題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市에 상당히 큰 工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道峰區에 있던 미원공장이라든지 三養라면 같은 것이 전부다 지금 떠나고 없습니다. 이 전부 공해공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이라는 都市가 완전히 다음에 이런 工場들이 李亮漢 委員님께서 主張하신 대로 전부 地方으로 다 떠났다고 그러면 서울은 生産工場이 없는 消費都市로 轉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問題는 서울市에 장차에도 상당히 問題가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都市型工場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公害工場은 移轉促進法에 의해서 전부 내보내고 그 이외의 工場들은 서울市가 誘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서울市에도 市民들이 사는 한 이런 都市型工場들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都市에 散在해 있어야 都市의 運營問題라든지, 歲入의 問題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提起될 것으로 봐서 이 工場이 있어야 될 필요를 느끼면서 이 提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러면 왜 業者에 대해서 이런 利益을 주느냐의 問題는, 工場을 우선 지어야 分讓을 받습니다. 그럼 짓는 사람이 利益이 있어야 그 工場을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시면 이 工場을 그렇게 많이 짓지를 않습니다. 分讓의 利益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어야, 그러니까 그

業者한테 페이퍼를 줘야 짓지 않겠느냐, 그런 意味에서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서울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他市·道에도 全國적으로 이런 條例들이 運營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 이런 工場이 필요하고, 또 그 業者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바로 우선 많이 짓도록 誘導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提案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의 위원님께서 건축허가, 아까 김상남 위원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이 임대업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지금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金勝建 委員님께서 質疑를 하신 어느 地域에 얼마나 들어설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資料에 다 나와 있어요」하는 委員 있음)

그렇게 좀 理解를 해 주시고.

○盧載東 委員; 이것 좀……. 局長님, 向後 아파트型工場 建設計劃을 보면 276個 工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풍림토건에서 衿川區 禿山洞에 짓는 것은 20個 工場인데, 한 棟을. 94年 3월에 벌써 着工을 해서 금년 10월에 完工을 한다는 얘지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이것은 進行 中에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財務局長 權五虎;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전부 進行 中입니다.

○李延義 委員; 지금 財務局長께서 얘기하는 대로 여기 현재 276個 工場을 이미 着工 내지는 着工計劃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工場이 것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그렇습니다.

○李延義 委員; 이것을 지어도?

○財務局長 權五虎; 네.

○李延義 委員; 앞으로도 엄청난 工場을 더 지어야 되는 問題가 생긴다는 것입니까?

○財務局長 權五虎; 지금 아까 金勝建 委員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工場用地에 못들어가고 家庭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번두리에 工場 運營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都市整備 次元에서도 이런 制度圈 內로 들어와야 되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한데 몰았을 경우에 業者들한테 상당한 利益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電氣 끄는 問題라든지 여러 가지로 利益이 있기 때문에 이런 措置를 하고…….

○李延義 委員; 지금 論理로 보면 말씀이 맞는데, 과연 零細 業者들이 여기를 들어갈……. 貫나 分讓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들어간다고 本委員은 생각되고, 또 여기 지금 276個 棟을 짓는 建設業體들이 計算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서울시 中小企業을 위해서 이렇게 工場을 짓겠느냐 하는 問題가 疑問視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지 서울의 零細 中小企業들이 이렇게 施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으로 正常的인 分讓價를 내고 들어갈 수 있을만큼 여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工場을 지금 짓고 있는 이 企業들이 전부 다 綜合建設會社들인데 절대 이들이 國家的인 次元에서 中小企業을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營利를 위해서 짓지, 이들이 國家的인 次元의 政策에 의해서 工場을 지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고, 아까 修正 動議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에 이 建設業者에게 取得稅, 登錄稅를 免除한다면 당연히 分讓價에서, 서울시가 政策的으로 分讓價에서 入住者에게 計劃的인 分

讓價의 調整 내지는 賃貸의 調整을 해 주지 않는 한은 이 利益은 전부 이 企業에게 돌아간다. 또 그리고 企業이 그것 때문에 工場을 짓지 않는다는 論理는 제가 볼 때는, 저도 建設을 하고 있지만 맞지 않다고 本委員은 생각되어서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더 구체적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案을 다시 한 번 次期 會議 때 提出해서 通過되도록 했으면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建設會社에게 주는 取得稅, 登錄稅는 당연히 本委員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文錫珍; 盧載東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盧載東 委員; 盧載東 委員입니다

조금 전 李延義 委員 말씀한 데 대해서 일부 同意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는 좀 見解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뉴욕 맨해튼 같은 데도 가보면 15層, 20層 아파트가 외견상으로 보면 오피스빌딩 같은데 사실 그 내부에 가면 봉제공장 같은 이런 것이 죽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다만, 都市의 住宅街에도 散在해 있고, 住宅街 地下室에도 들어가 있고, 밤중에도 作業한다고 騒音이 나는 이와 같은 工場들을 아파트型工場으로 移住를 전부 시켜서 集團化시키는 것이 都市環境, 美觀이나 여러 가지 整備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아파트型工場에 들어가는 業種들이 公害를 다시 再生産하는 그런 工場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李延義 委員하고 見解를 같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算出해 놓은 稅額을 보면 아파트 建設業者하고 최초로 分讓 받는 工場主들하고를 合計해서 죽 내놓은 것 같은데, 95년에 예를 들어 61個 工場에 18億원이 市稅가 減少가

되고, 96년에 35億원, 97년에 33億원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인데, 이 중에서 아파트型工場을 建設하는 建設業者들이 土地 取得稅가 무서워서 赤字도 되기 때문에 建設을 안한다고 안 본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당초에 이와 같은 工場 建築許可를 내줄 때 標準地價가 이미 나와 있을 것이고, 어떤 모형으로 어떤 設計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建築許可할 때 봐줄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 土地에 대한 取得稅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이미 計算上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分讓價에서 節減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入住하는 零細業者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것은 李延義 委員하고 제가 意見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建築業者들에 대한 取得稅 免除하는 것은 조금 再考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풍림토건이라든지, 여기도 보면 동일토건이라든지 몇 군데 보면 상당히 財力이 있는 會社들인데 取得稅 때문에 이런 아파트型工場 設立이 收支가 안맞다 이래서 工場을 안 짓지는 않을 것이다 이말이지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市가 어떤 프로젝트를 計劃을 하고 推進을 하면 대개 그 業者들의 속성이 하여간 稅金을 좀 減免해 주십시오 하고 달려드는 것이 第1次的인 꼴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型工場을 設立 認可를 내주고 이럴 때 契約條件이 있으면 그런 것이 대개 어떤 事項들이 그 契約條件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參考的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資料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金勝建 委員님 같이 質疑하신 다음에 答…….

○財務局長 權五虎; 質問의 內容 다시 한 번…….

○盧載東 委員; 방금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런 것 設立認可를 내줄 때, 아파트型工場 新築許可를 내줄 때에 대충 어떤 條件들이 契約條件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內容들이? 저희들 판단 資料를 하기 위해서 討論 한번 해 보자 이것이지요.

○金勝建 委員; 金勝建 委員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同僚委員님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한 분도 빠짐없이 거의 동일한 意見을 내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問題 提起를 하신 李亮漢 委員님, 그 다음에 李延義 委員님, 盧載東 委員님, 또 저까지도 지금 보면 財務局에서 이 條例改正案 낼 때의 趣旨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內에 問題되는 것들을 다시 都市型工場을 지음으로써 環境 公害問題도 좀 줄이고, 또 실지로 필요한 需要에 大鷹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同僚委員들도 똑같은 생각이 과연 企業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稅金 減免을 내놓고 계신데, 建築業자들이, 建築하는 이 業者들이 과연 稅金 그것 때문에 그 정도 인센티브만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금 同僚委員님께서 指摘하셨듯이 이미 이분들이 取得稅나 登錄稅나 기타 稅金에 대해서 그것을 原價에 다 넣고 들어왔을텐데 그분들에게 또 똑같은 혜택을 다시 줘야 되느냐 하는 問題는 한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法이 改正이 되면 계속해서 이런 都市型 아파트型工場들이 들어설텐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規模가 더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예상되는 것이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財務局

의 準備 부족인지 아니면 저희 委員들의 準備 부족인지는 모르지만 이 條例改正案을 알지도 못하는 狀況에서 通過시킨다는, 舉手機 役割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基本 價値觀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 한번 이 問題에 대해서는 조금 時間을 갖기 위해서 延期 審議를 하든지 하여튼 좀 이런 것들을 要請을 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대체로 意見들이 좀 集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執行部에서 우리 委員會 委員분들에게 충분한 說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疑問이 잘 解消되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미 執行部에서 나누어 주신 資料에 의하면 10棟 276個 工場이라는 것이 향후 단순한 計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工場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우리가 條例를 通過시키면 86億 원의 혜택을 볼 業體들이거든요, 이 業體들의 名單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疑問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修正動議, 아직 再請 없으셨는데, 修正動議보다는 좀 保留해서 審議하자는 것이, 조금 더 研究해 보자는 것이 우리 委員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保留動議를 金勝建 委員이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再請 여부를 묻겠습니다.

(「한마디 하고…….」하는 委員 있음)

네, 再請받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세요.

○李亮漢 委員; 제가 서울시에 工場을 만들지 말자는 사람 같은 인상을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자는 얘기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資料에 보면 이미 工場이 取得稅는 다 물었습니다, 서울시에다. 물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이 95年 7

月이니까, 이미 땅 샀으면 取得稅 낸 것 아닙니까? 還拂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것 減免해 주자 그러면? 94年度 산 것은…….

○財務局長 權五虎;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條例改正이 되고나서부터 適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다 물었어요.

○李亮漢 委員; 그럼 다 물었잖아요?

○財務局長 權五虎; 네, 그러니까 지금 建物は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基本的으로 이것을 減免을 해 주자는 것은 지금 工場需要가 現 狀態로 놓으니까 이것이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우선 工場이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여기 業者들이 만약에 이것이 收支가 맞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을 수도 있는데, 바로 收支 측면이 안 남고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떡을 하나 더 줘서 많이 짓도록 하자는 것이 이 趣旨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져 있는 이것이 限定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보다 훨씬 많은 工場이 들어와서 다수의 우리 工場 不足者들이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아까 李延義 委員님께서 지금 이 工場들이 거기 갈 수 없다, 그럼 이 사람들 안 짓습니다, 分讓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分讓이 될 것을 前提로 하고 지금하는 얘기인데, 分讓이 만약 안 된다 그러면 그 때부터 이것은 이런 혜택을 주더라도 안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業務를 사실은 제가 答辯을 드리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이 業務는 지금 産業經濟局이 지금 推進하고 있고, 條例가 우리 市稅減免條例에

있기 때문에 제가 說明을 드리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基本趣旨는 전에도 한참 나가기만 하고 우리 工場이 부족해서 난리가 날 때 앞으로 서울시가 그럼 이런 生産的인 요소는 다 내버리고 消費者 問題만 붙들고 있을 때 뉴욕市처럼 돈 낼 사람은 전부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負擔은 많고 돌아오는 것은 적으니까 전부 地方으로 다 떠납니다. 지금도 서울에 그런 현상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誘致를 안하고 자꾸 내보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앞으로 20年이나 30年 後에 우리 서울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工場 誘致는 필요하고, 또 이 中小企業 支援을 위해서 우리 얼마 전에 起工한 창업센터의 支援이라든가 이런 것을 市가 몇 십억원씩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汝矣島에도 지금 몇 십억원 들여서 安保展示場을 내보내고 거기 展示空間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소위 中小企業 支援策의 일환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中小企業도 아닌 業者가 왜 돈을 버느냐? 그것은 저도 業者가 돈을 벌어가는데에는 반대입니다만, 그 業者들이 돈이 좀 많음으로써 그 쪽에 많이 投資할 수 있는 그런 誘引의 手段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延期를 해 주시면 다음에 産業經濟局이 와서 더 補充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他 市·道도 전부다 이런 對策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일방적인 見解라든지 그런 計算이 아니고 政策方向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添加해서 드리겠습니다.

○李亮漢 委員; 委員들이……. 대개 市가 하는 프로젝트만 있으면 하여간 取得稅를 減免을 받고 될 減免을 받아서 접근을 하는데, 과연 이와 같은 工場을 設立하는 建築業者들이 取得稅를 減免 못받기 때문에 分讓 가능한 아파트型工場이 分讓 불가능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와 같은 市稅 減免의 問題가 자꾸 대두될 때 너무 쉽게 우리가 고려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한번 檢討를 해 보자 이런 意見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마저 말씀하십시오.

○金相男 委員;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 86億원이 減免되는데, 276個 공장, 물론 取得稅는 냈으니깐……. 예를 들어서 한 工場이 3,000萬원씩 利得을 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利得이 入住하는 또는 分讓받은 中小企業에 돌아가야지 이것이 建築業者한테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서 이 減免된 稅額이 실지 賃貸 中小企業이나 分讓받은 中小企業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補償할 수 있는 裝置가 있느냐?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 立場은 다 마찬가지로 지니까, 저도 工場도 하고 있지만 이런 아파트型工場도 쓰고 싶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혜택이 실지 中小企業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裝置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補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權五虎; 그 裝置는 이제……. 그 裝置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業者의 分讓價를 낮출 수 있는 그런 契機는 충분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낮아지면, 자율적으로 낮아지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制度的으로 取得稅, 登錄稅 낮아진 만큼 工場價格 낮추어라 하

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이 改正된 條例案이 通過되고 안 通過되고에 따라서 당장 時急하게 問題 死活을 줄 그런 事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保留動議가 있었으니까 그 時間 동안에 우리 委員會 안에서도 더 檢討를 하고, 또 執行部 안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質疑 答辯 過程 중에서 提起되었던 問題點들을 충분히 檢討하셔서 다음 會期에 提出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러면 묻겠습니다.

金勝建 委員께서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이 案에 대해서 신중한 審査가 要求되므로 保留하자는 動議를 해주셨습니다.

이 保留動議에 대해서 再請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保留動議에 대한 意見은 아까 우리 局長님께 얘기를 들었으니까 바로 議決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保留動議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保留動議案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저희가 오늘 다루는 懸案報告 財務局에 대한 事項과 그리고 改正條例案은, 懸案報告는 아까 저희가 業務報告를 통해서 잘 들었고요. 改正條例案은 保留가 되었으므로 財務局에서는 產

業經濟局과 協助해서 충분히 討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 번째 議案과 네 번째 議案이 있는데, 議案에 들어가기 전에 財務局에 계신 분들은 退場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잠시 또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財務局長 權五虎; 금번 會期 中에, 다시 내일이라도 說明을 드릴테니까 會期 中에 좀 處理를 해 주시는 方向으로……. 다음 會期로 넘기시지 말고 可否間에…….

(「잠간 議事進行發言…….」하는 委員 있음)

○金勝建 委員; 한 1分間만, 잠시만 停會를 한번 잠깐만 要請합니다. 잠시 停會를 要請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일단 議事進行發言에 대해서는 다른 再請이 없었기 때문에…….

○財務局長 權五虎; 내일이라도 産業經濟局하고 필요한 資料들을 드릴테니까 會期 內에 좀 해 주셨으면…….

○金勝建 委員; 아까 審議 延期하자고 그럴 때 審議 延期하자고 하시지, 또 保留하자니까 保留하시는…….

○財務局長 權五虎; 아니, 그러니까 나는 保留가…….

○金勝建 委員; 審議 延期를 要請…….

○財務局長 權五虎; 아니, 保留가 오늘 保留로 그렇게 理解를 하는데, 지금 마치는 것이 이번 會期에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委員長 文錫珍; 審議 延期를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保留動議를 하셔서……. 일단 저희가 事案이 중대하다 하면 다음 週에라도 要請이 있어서 또 常任委를 별도로 열어서 會期 內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단 그러한 事項은 융통성을

가지고 저희가 對處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事案이라고 하시면 産業經濟局하고 協議하셔서 저희 委員會하고 協議할 수 있도록 協助를 해 주십시오.

일단 保留動議가 可決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議事進行發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關係公務員 여러분 또 局長님, 여러 가지로 說明하시고, 오랜 時間 동안 質疑 答辯에 응해 주시고, 또한 市稅條例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討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른 議案 두 가지 事項은 우리 委員會 자체 내에서 해야 될 事項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5分間만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36分 會議中止)

(18時 45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錫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3.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行政事務調查計劃採擇의件

○委員長 文錫珍;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行政事務調查計劃採擇의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同 計劃案은 그 동안 2次에 걸쳐서 討議 過程을 통하여 計劃案이 作成되었으므로 油印된 計劃書を 參照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또 同 計劃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있으신 委員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洪奎 委員님.

○金洪奎 委員; 金洪奎입니다.

調査實施計劃 페이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밑줄입니다. "기타 都賣市場 內 流通構造 등을 중점 調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本 調査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認定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調査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明示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4페이지요」하는 委員 있음)

○金洪奎 委員; 네, 調査實施計劃 그 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보시고, 제일 밑을 보시면 其他欄에 "기타 都賣市場 內 流通構造 등을 중점 調査한다" 했습니다. 거기에 "기타 都賣市場 內 流通構造 등 本 調査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認定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調査를 할 수 있다"라는 明示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꾸자 그 말씀이지요?」하는 委員 있음)

네.

그 얘기는 비단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범위 외에도 우리가 調査를 하다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調査委員會에서 認定이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調査를 할 수 있도록 明示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점이라는 말 빠지요, 그럼」하는 委員 있음)

(「다시 한 번……」하는 委員 있음)

(「流通構造 및 이렇게 되겠네요」하는 委員 있음)

"기타 都賣市場 內 流通構造 등 本 調査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認定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調査를 한다" 이렇게 明示를 해 두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文錫珍; 그러면 제일 마지막줄 기타 都賣市場 內 流通構造 및 本 調査…….

(「이외에」하는 委員 있음)

이외에, 및 하고 이외에 입니까?

○金洪奎 委員; 네.

○委員長 文錫珍; 本 調査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부분에 대해서 調査한다…….

(「調査할 수 있다」하는 委員 있음)

調査할 수 있다…….

○金洪奎 委員; 調査한다고 하는 것이…….

○委員長 文錫珍; 調査한다라고 하지요.

저희들 行政事務調査計劃書 原案 자체가 이렇게 修正된 것으로 해서 原案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별도로 修正動議하는 것이 아니고 計劃書 자체의 文句를 그런 式으로 修正하는 것으로, 文句修正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뭐 별도의 다른 意見이 아니고 文句 修正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行政事務調査計劃을 原案대로 採擇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採擇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뒤에 실음)

4. 서울特別市金庫制度改善小委員會活動經過報告

(18時 50分)

○委員長 文錫珍 ;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金庫制度改善小委員會 活動 經過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小委員長님이신 金相異 委員님 나오셔서 그 동안 活動經過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 金相男 ; 時間도 많이 지나가고 이래서 간단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3次에 걸쳐서 小委員會 會議를 開催했습니다. 9月 4日 3時부터 한번 했고, 2次 會議는 9月 15日 2時부터 했고, 3次 小委員會는 9月 21日 6時에 있었습니다.

第1次 小委員會에서는 幹事로서 李廷義 委員이 選任됐었고, 각 委員 다섯 분에 대해서 分野別로 業務分擔을 해서 서로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第2次 小委員會에서는 市金庫 關係公務員 즉, 會計課長과 商業銀行 太平路支店長이 出席하셔서 資料도 提出하고, 答辯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委員別 活動業務에 대해서 進行事項을 報告했습니

다.

第3次 小委員會에서는 提出받은 資料에 대해서 檢討가 있었고, 각 委員別 意見 開陳이 있었는데, 특히 資料 遲延提出에 대한 問題點이 많이 論議가 됐고, 資料의 신빙성이라든가 정확도에 대한 檢證이 필요하다는 意見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3次 會議에서 저희들 小委員會의 결론은 行政事務調査를 本 業務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意見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報告를 끝낸 후에 같이 한번 우리 委員會 전체에서 論議가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小委員會 進行過程에서 저희들이 市金庫의 現況과 問題點, 向後 檢討事項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論議가 있었는데, 現況은 지금 歲入業務에 대해서는 오늘 財務局에서 報告를 들어서 거의 다 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市金庫로 들어온 돈이 들어온 즉시는 金利 1%짜리인 公金預金에 預金이 되는데, 그것을 會計課長이 판단해서 定期預金으로 돌립니다. 定期預金이 1個月짜리부터 1年짜리까지 4種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균 利子收益率이 한 7%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問題點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要求한 資料가 提出되는 것이 너무 遲延된다, 時間이 많이 걸린다는 問題點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1%짜리 公金預金の 平殘이 600億 원이 남는데, 이것이 과다 保有되어 있다. 그 다음에 셋째는 定期預金の 期間이 너무 無原則하게, 또 비과학적으로 策定이 된다 그런 問題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問題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資金運用에 대한 執行計劃이 면밀하게 樹立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問題가 指摘됐습니다.

그 다음에 中途解止는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그 전에는 中途解止가 많았기 때문에 金利損失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問題는 收納銀行에서 저희들 市金庫 口座로 들어오는 期日이 5日 내지 10日인데, 이것이 과연 적절하냐 하는 그것에 대한 問題點 提起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向後 檢討事項에 대해서, 아직 改善方案은 안 나왔습니다. 檢討事項에 대해서는 公開入札 및 複數化에 대한 가능성을 檢討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현재 商業銀行이 갖고 있는 電算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과연 公開入札 및 複數化가 가능하냐? 그것에 대한 檢討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定期預金이외에 CD라든가 信託 등 高金利 金融資産에 대한 投資가 가능하냐? 그것에 대한 檢討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金利 自律化에 따른 定期預金, 特約 가능성 그것에 대한 檢討, 그 다음은 우리 서울시 전체 資金運用에 대한 科學的이고 體系的인 計劃을 樹立하는 組織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事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定期預金 또는 CD나 信託에 資金을 投資했을 때 一時 필요한 資金에 대해서는 金庫 銀行과 當座貸越契約 같은 것을 체결하여 부족한 資金을 一時 活用하는 方案, 이것도 檢討事項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小委員會가 活動한 事項에 대해서 간략하게 報告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行政調查權 發動에 대해서 저희들 小委員會에서는 어제 全員 合意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全體會議에서 行政調查權 發動에 대해서 論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한 가

지는 行政調査權이 節次가 필요합니다. 53名 議員의 署名이 필요하고, 本會議에서 議決되어야 되고, 또 오늘……. 조금 전에 農水産物都賣市場에 대한 行政調査 細.部計劃처럼 이 案이 또 확정이 되어야 그대로 行政調査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行政調査權을 發動해서 이 案이 다 확정되는 그 공백기간에 小委員會 活動을 계속할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論議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市金庫制度改善小委員會가 3次の 會議를 公式적으로 가졌고, 또 非公式적으로 여러 가지 討議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일정한 成果를 가져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코 우리가 부족해서라기보다도 더욱 더 잘하기 위한 論議를 하기 위해서 오늘 經過報告를 겸해서 지금 필요하신 事項을 말씀하신 것으로 理解를 합니다.

이상 報告드린 대로 小委員會 活動結果 보다 효율적으로 市金庫를 調査하기 위해서 行政事務調査를 하거나 特別調査委員會를 構成하도록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權限을 委任받아서 實施할 수 있는 行政事務調査權 發動하자는 意見에 대부분 다 同意를 했습니다. 그래서 行政事務調査를 發動해야 되는지 또는 小委員會 活動을 계속해야 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意見을 개진해 주십시오. 그러한 意見을 들어서 오늘 決定하도록 하겠습니다.

(「意見에 앞서서 제가 背景說明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委員 있음)

네, 그러면 背景說明을 다소 듣도록, 그런 時間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李廷義 委員 ; 小委員會 幹事로서 調查權을 發動해야 될 背景에 대해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小委員會에서 調査를 하는 過程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書類를 提出 받았을 때, 아까 財務局長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商業銀行이 제대로 提出해 주지 않아서 저희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會計課에도 직접 다니고 했습니다만, 底意가 어떻게든지 今年末까지 우물 우물 넘어가서 延期하자는, 商業銀行의 存立問題가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意圖가 확실히 깔려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이 調查權을 發動하지 않고 資料를 받아서만 하다보니까 資料를 우리가 받아서 보면 또 資料가 필요하다 確認해야 되고, 또 필요해야 되고 하는 問題가 계속 대두되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資料 만 받다가 6個月, 1年 걸리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두번째 지금까지 우리가 小委員會에서 調査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CD로 할 수 있는 金利로 計算해도 5年間 약 2,000億원의 손실이……. 한 이천 사오백 억원의 損失을 우리가 봐왔고, 또 이것을 運用計劃을 잘 세워서 定期預金 내지는 解止가 제대로 되지 않게 했다면 그보다 더 倍 정도의 利子를……. 利子 損失을 봤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서울市 豫算의 規模로 봤을때 수천억원이라는 돈의 損失이라는 것은 엄청난 問題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小委員會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볼 때 이 問題는 참으로 중대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OCR센터를 서울시가 필요해서 했느냐라는 문제가 되는데, 商業銀行이 서울시의 市金庫 業務를 擔當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分類해서 手作業을 하다보니까 너무 힘이 들고, 또 우리 電算센터가 運營되어서 電子計算所에서 전부 電子計算所에 의한 告知書가 發給되다 보니까 手作業을 하기에는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 따라가려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商業銀行이 할 수 뿐이 없었다라는 결론이, 이것이 바로 나왔고, 그리고 제가 確認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이 OCR센터를 運營하면서야, 우리가 이것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고, 또 分類作業까지 해 주니까 당신들이 預金을, 좀더 定期預金을 상당한 부분 해 달라 지금 제가 確認을 못했습니다만, 200億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해서 작년 94년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3個月짜리, 가장 적은 金利 3個月짜리 200億원을 고정적으로 預置……. 定期預金을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가 OCR센터라는 그 名目下에 商業銀行에 상당한 특혜를 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調査를 하려고 보면 우리가 직접 調査權을 發動해서 직접 챙기고, 確認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專門要員을 우리가 직접 配定을 받아서 專門要員이 파헤쳐야만이 이 問題를 파헤칠 수 있다라는 결론에 到達했기 때문에, 우리 小委員會의 能力과 힘만을 가지고는 力不足이다 이런 결론에 의해서 調査權 내지는 調査特委를 發動해야만이 된다고 提起가 됐고, 契約 자체에 問題가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契約자체에.

지금 보면, 지금 제가 金信浩 委員에게 다시 한 번 疑問 提起를 하고 싶은데, 또는 좀 確認을 해 줬으면 하는 問題가 있

는데, 이것이 獨寡占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問題, 독과점 법에요. 그냥 계속 商業銀行에다 했던 것, 그 다음에 公正去來委員會의 有權解釋을 좀 받도록 하는 問題를 우리가 신중히 檢討했으면 좋겠다라는 問題를 또 提起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가 좀더 組織的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調查委員會 내지는 調查特委를 構成해야만 이 問題를 突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委員員 文錫珍 ; 金勝建 委員님.

○金勝建 委員 ; 저는 일단 市金庫小委에서 委員들께서 이것이 行政調查가 필요하다라고 決定하셨으면 그것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意見을 그대로 反映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사실 저는 農水產物流通管理센터 行政調查이 멤버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저희들밖에 없으니까 사실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사실 마음의 負擔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負擔이라는 것은 제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意識이 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行政調查나 國政監查나 行政事務나 뭐 國政調查權을 發動했을 때 항상 처음에 우리가 計劃하고 했던 것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立證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結果報告書를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行政調查權을 發動했을 때에 역시 아, 이것은 분명히 개개인의 問題가 아니라 4次 서울市議會 財務經濟委가 發動한 行政調查權은 역시 정당했고, 그리고 이러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市議員들이 잘했다 하는 그런 評價를 받고 싶은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지만, 저도 지금 그래서 아까 負擔스럽다는 것이 農水產物流通管理센터, 제가 봐도 이것 굉장히 의혹이 많고, 정말로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과연 6 個月 뒤에

結果報告書를 쓸 때 저 사람들이6個月 동안 큰 것이라고 그렇게 난리쳤던 것이, 결국 財務經濟委에서 했던 것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마음의 負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많이……. 제가 調査權 發動을 反對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게 원대한 計劃보다는 조금 눈에 일단 可視的인 것부터 하나 하나 밝아나가서 目標를 조금 작게 잡으셨다가 조금 넓혀가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贊成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 李亮漢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亮漢 委員 ; 저도 金勝建 委員의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行政調査委員會 發動을 저도 전적으로 贊成을 합니다. 왜 贊成하느냐 하면, 저희들 힘으로 도저히 資料를 못받으니까, 아까 金相南 小委員長께서 말씀하셨다시피, 金相男 小委員長이 調査매뉴얼은 發表했습니다. 어떤 것을 調査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工 調査를 하려면 書類와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는 書類와 面談하는 사람이 필요해야 調査가 되는 것이지 사람도 없고 書類도 없으면 혼자 공허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小委員會 하면서 걱정이 대단히 됩니다, 사실은.

왜 되느냐, 사실은 소문은 크게 났고, 新聞에도 나고, 市金庫 뭐 한다는 것은 다 아는데, 실제 우리가 新聞에 나고 텔레비전에 난 것만큼 저희들이 할 수 있느냐? 또 우리 李廷議 幹事님께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金額이라든지 그런 額數는 자꾸 얘기 안했으면 좋겠다 이것

이지요. 뭐 얼마다 얼마다, 이것을 잘못하면 누가 듣고 가서 저희들이 그 이상 나오면 다행인데 그보다 좀 작게 나오면 봐주지 않았느냐, 실컷 해놓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 스스로가 小委員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조금 다듬으면서…….우리가 行政調查權을 發動하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局長님도 말씀하시는 것이, 만나서……. 여기서 자기가 答辯할 資料 충분한……. 答辯도 듣고, 우리가 資料도 충분히 要求하고, 小委員會 發動해서 또 필드 워도 나가서 하고, 그래서 매뉴얼을 착실히 짜서, 委員長님께서서는 매뉴얼을 꼭 짜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짜여진 그것을 매일 체크해 주고, 日課報告 어떻느냐? 해 줘야 委員長으로 하시는 일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그것은 우리 각자 막 다니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저도 이것.

그래서 꼭 確認해 주시고, 어떤 分野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機會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 盧載東 委員님 意見 말씀해 주십시오.

○盧載東 委員 ; 원칙적으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行政調查權을 發動을 하자 하는 原案에는 제가 전적으로 同意를 합니다.

同意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까 우리 財務局長 答辯過程에서 限時的인 契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財務經濟委員會 小委員會에서 하는 이 市金庫 制度改善에 관한 調查小委員會가……. 뭐 李亮漢 委員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委員들 어

제도 깊이 얘기를 했지만 절대로 뭐가 아, 정말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이것 손을 대더니 합리적인, 그리고 뭐가 수공이 가는, 정말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그런 改書案이 나왔구나, 야, 이것 정말 바람직하다 이런 소리는 적어도 우리……. 60 점은 받는 論文을 내야 되겠다 이런 얘가지요. 그래서 財務局長 얘기는 자기네 불러주면 자기네들도 한 두서너 가지 案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터놓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안 불러 줬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시다만, 아직까지 그런 체계는 아닌 것 같고, 이미 우리가 오늘 이 常任委員會에서 財務局 業務報告를 받으면서 미진한 부분 資料要請을 促求를 해서 9月 末日까지 내겠다 하는 것을 本會議 閉會日程 이전까지 내도록 促求를 했기 때문에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지금 10월에 가서 한 열흘 臨時會를 하고, 11月 20日 가서 決算議會를 年末까지 하게 되면 정말 그 때 가면, 12月되면 정신 없어서 실제로 이것을 페이퍼 워크를 하거나 資料整理를 하거나 뭘 하는데 時間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쫓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12月 年末에 更新되는 契約이 1年 정도로 우리가 딱 限時的인 契約을 하도록 우리가 促求를 해서 해 두고, 우리가 좀 時間을 넉넉하게 가지고 이 案을 마련하는데 점차적으로 短縮을 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財務經濟委員會 安錫洙 專門委員 혼자 가지고 되겠느냐? 방금 李亮漢 委員 말씀하셨듯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銀行 計理業務나 아니면 銀行을 擔當하고 있는 公認會計士 法人, 會計法人의 會計士들을 템퍼러리로 일

정기간을 우리가 差出을 해서 資料分析에 대한 所見을 添附
를 하고 이런 式으로 죽 하고, 또 時間이 있어 내년 봄 정도
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정신을 한번 차리면……. 얘기가 먼저
북악파크에서 나왔습니까, 몇 분……. 梁敬淑 委員이 起案을
했었는데, 이 關聯分野를 專門家라고 認知할 수 있는 분들을
몇 분을 초청을 해다 크게 公開된 場所에서 公聽會를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우리 市議會 議事堂 內 어느 부분에서든지
이 부분을 深度 있게 論議를 해서 그분들의 意見도 우리가
接受를 하고, 이렇게 취합을 해서 책자로 그것이 나갈 수 있
는 그런 準備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음의 負擔을
너무 촉박하게 가지지 말고 좀 느긋하게 이 問題를 論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專門委員께 하나 여쭙봅시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 네.

○金相南 委員 ; 아까 제가 조금 전에 問題 提起를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本會議에서 行政調查權 發動하려면 本會議에
서 그것을 받아야 되지요?

○專門委員 安錫洙 ; 네, 그렇습니다.

○金相南 委員 ; 그런데 지금 物理적으로 지금 현재 本會議가
28日까지입니까?

○專門委員 安錫洙 ; 네, 그렇습니다.

○金相南 委員 ;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專門委員 安錫洙 ; 行政事務調查를 發動을 하려면 일단 50
人 이상의 우리 議員님의, 그러니까 在籍議員 1/3입니다, 그
러면 50人이 되기 때문에 그 署名을 받아서 다시 議案으로
接受를 한 다음에 이것이 本會議의 採標을 받아야만 行政事

務調査權이 發動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調査權만 發動되었다는 것이지 어느 委員會에다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또 決定을 해야 됩니다. 調査特別委員會를 構成할 것이냐 아니면 財務經濟委員會로 하여금 權限委任을 시켜서 調査委員會를 構成해서 自治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냐 그것이 또 決定이 납니다. 그러면 그 委員會의 決定이 나면 거기에 의거해서 다시 또 調査計劃書, 우리 방금 農水産物都賣市場처럼 다시 또 調査計劃書を 채택을 해서 다시 本會議의 承認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物理적으로는 行政事務調査를 發動을 하려면 이번 9月 28日 行政事務調査 채택件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月中에 調査計劃書 作成의 채택의 건을 다시 本會議에 받아서 10月 臨時會 中에나 실질적으로 일을 執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 저희가 염려한 事項 中에서 契約期間을 短縮하는 이런 問題는 저희가 정 안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契約이 慣例上 3年씩으로 계속 되어왔기 때문에 막상 1年으로 한다든지 6個月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 자체도 커다란 意味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決定을 하겠느냐 하는 問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時間적으로 物理적으로 우리가 했는데 限界에 부닥쳐서 안 됐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要請할 수 있는 方法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해서 우리가 時間적으로 여유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이 作業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후의 보루로써는 그것이라도 建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前提로 해서 時間을 計劃 잡으

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잡은 대로 定期會前까지는 결론을 導出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行政事務調査도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行政事務調査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物理的으로 바로 바로 다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決意를 해서 本會議에 모든 節次를 밟아 나가자는 것도 그런 時間的으로도 우리가 限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있어서의 方式은, 行政事務調査에 대한 議題가 채택이 되면 일단은 形式的으로는 行政事務調査에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銀行과 財務局에 協助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行政事務調査를 한다든지 하는 時間短縮의 運營의 妙는 우리가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것을 時間的으로 이번 本會議에 완전히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완전히 失機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필드 워를 하고 싶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 쪽에서 저희들이 資料 갖다 드릴테니까 小委員會에서 하시지요 이렇게 해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權限을 가지고 실제로 저 쪽에서 協助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해 왔습니다. 行政事務調査없어도 協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權限을 附與받는 것하고 附與받지않고 皮동적으로 저 쪽의 協助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盧載東 委員 ; 그러니까 제 얘기도 방금 安錫洙 專門委員이 얘기를 했듯이 이번 28 日 閉會되기 전 臨時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本會議에 上程해서 그

案을 通過시키고, 우리 財務經濟委員會 小委員會에 다시 委任 받는 本會議 決議를 받고, 할 수 있는 한은, 物理的으로 時間的으로 短縮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 이것입니다.

○委員長 文錫珍 ; 梁委員님.

○梁敬淑 委員 ; 저는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專門委員한테.

行政事務調查權 發動하고 行政事務調查計劃書を 동시에 本會議에서 決議를 받아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50人 이상의 署名은 미리 本會議 前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하면 常任委員會가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한 委員會에 한 사람씩만 가서 받더라도 거의 대부분 받고도 남은 時間입니다. 그래서 行政事務調查權 發動하고 調查計劃書を 동시에 다음 28日 本會議에서 承認을 받아서, 決議를 받아서 그 이후에는, 28日 이후에는 行政事務調查에 들어갈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저는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專門委員 安錫洙 ; 梁委員님 質問하셨는데,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法的根據를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전에 農水産物理賣市場 行政事務調查할 때에 이 法的 檢討를 죽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도저히 物理的으로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템포를 죽여서, 그러니까 行政事務調查 發動하는 것만 그 臨時會에 하고 이번 會期에 이 調查計劃書を 채택을 한 것입니다 .

○梁敬淑 委員 ; 그런데요, 그 때 당시에는 小委員會 活動을 안했었고, 지금은 小委員會活動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한 달 이상요. 그리고 이미 商業銀行 쪽이나 서울市로부터 많은 資料를 確保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흡한 부분은 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委員들한테 調查計劃書を 내라고 한다고 그래도 지금 낼 수가 있거든요, 뭐 한나절만 作業하면. 그렇기 때문에 專門委員 線에서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저라도 나서서 計劃書 만드는 것에는 같이 합류를 해서 計劃書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릴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活動한 成果가 있고 또 內容도 있으니까.

○專門委員 安錫洙 ; 죄송합니다, 일이 어려워서 그것이 힘들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法的 節次上 그렇다는 것이지, 그 일이 物理的으로 도저히 힘들기 때문에 이번 會期 中에 못한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金勝建 委員 ; 專門委員, 제 생각에……. 그것만 한번 檢討를 해 줘 보세요. 지금 梁敬淑 委員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할 때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할 때는 農水産物流通센터에서 별로 事前 인포메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計劃書 짜는데 問題가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整地作業은 됐다는 말이에요, 市中金庫는.

그런데 제가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는 行政調查權 發動하는 그 案件하고 調查計劃書하고 다른 案件이 되어버리면, 저희가 本會議는 하루 남았는데, 28日. 하루에 만약에 동일 案件으로 處理가 될 수 있는 것이면 處理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案件으로 되면 處理를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어봐서 法的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만 檢討해 보면 될 것 같아요. 法的인 問題만 되면 되지 物理的인 問題는 問題가 안 되니까.

○委員長 文錫珍 ;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行政事務 調查權에 대해서 오늘 決議를 하고, 또 行政事務調查計劃도 동시에 提出하는 것으로 決議를 해서 本會議의 決議를 받는

것으로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節次上이나 아니면 도저히 法上으로 안 돼서 안 된다 하면 그 때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方式은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하는 委員 있음)

金洪奎 委員님 말씀해 주세요.

○金洪奎 委員 ; 지금 실질적으로 市金庫에서는 그 동안 資料가 있으니까,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이, 우리 農水産物센터도 지금 이 計劃書에 보면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物理적으로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려고 제가 專門委員을 무척 족쳤습니다, 그 때. 해서 바로 시작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때 本會議에서 일단 먼저 이 調査委員會를 構成을 한다라는 것 그것만 通過를 하고,

다음 本會議에서 調査計劃書を 넣어서 通過를 해야만이 된다 하는 이런 것……. 이것이 議案課로 들어가서 돌아가는 이 저기가 法的으로 그것이, 아마 物理적으로 안 됐어요.

제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農水産物都賣센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아주 바빠 서둘렀습니다. 바빠 서둘렀는데 도저히 物理적으로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梁敬淑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資料가 있다, 여기 지금 資料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農水産物都賣센터 무슨 資料가 있습니까. 資料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만, 調査計劃書도 당시에 이미 잡았었습니다, 우리가. 잡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物理적으로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보다 小委員

會로 넘기고, 그 小委員會에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에 準備를 하시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 일단 그 方式的인 問題는 저희가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節次를 나누어서 하더라도 일단은 오늘 意見 자체는 行政事務調査를 發動하자는 데에는 반대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金信浩 委員 ; 지금 그 法 常識으로 봐서는 특별한 瑕疵는 없습니다, 같이 竝行을 해도. 그것이 우리가 資料가 準備되어서 節次를 거칠 수만 있다면 그 節次만 거치면 되는 것이지 며칠을 두고서 節次를 밟아야 되는 그러한 法的인 根據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가능……. 어차피 本會議에만 通過만 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節次를 며칠 두고서 해야 된다는 그런 規定은 없을 것 같아요.

○委員長 文錫珍 ; 郭順英 委員님. 意見 말씀해 주시고요.

○郭順英 委員 ; 지금까지 우리 小委員會 活動하는 중에 商業銀行側이나 關係公務員들이 무성의했어요. 사실은 資料라든지 모든 것이 참 미진했고, 또 時間 보내기, 날짜 보내기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特委가 構成이 된다면 小委員會는 霧散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그 事項을 特委 構成으로 인해서 活動成果報告로 代替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우리 그 委員會가 이분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도 없어요, 特委가 構成이되면. 다시 構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小委員會를 構成해서 지금까지 活動을 했기 때문에 議長하고 調律을 하게 되면 들어가면서 特委가 構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小委員長이라든지 어떤 저기가 그 때 가서도 이것을 말아서 委員長을 한다

고 이런 것도 保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問題는 이미 全國적으로 알려져 있고, 모든 면에서 확실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단이 되어 가고 있어요. 요즘 죽 보면서 2,000億원에서 2,500億원 계속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좀 안했다가 나중에 報告할 때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을텐데 미리 이런 얘기를 자꾸 주위에서 이래요, 아, 이미 그렇게 크게 나있는데, 잘못된 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이미 우리를 딱 엮매여 났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지금 그……. 到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特委가 構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委員長 文錫珍 ; 지금 얘기는 郭委員님은 별도 意見으로 特委 構成까지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行政事務調査에 대해서는 우선 節次上的 問題는 남아 있지만, 전체 우리 委員會의 委員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同意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로 特委 構成을 提案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意見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意見 開陳하기 전에 安委員 準備하신 事項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잠깐 報告를 듣겠습니다.

○專門委員 安錫洙 ; 지금 저희 議會會議規則 第51條에 本會議 中 委員會 開會라는 規定이 있습니다. "本會議 中에는 다른 委員會를 開會할 수가 없다. 다만, 本會議의 議事進行을 協議하기 위한 議會 運營委員會 開催만은 例外로 한다" 이런 規定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本會議는 하루만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려면 우리 議員님들 10人 이상의 署名을 받아서 會期 延長의 件을, 議事日程變更을 要求를 해야 됩니다, 運營委員會에. 그래서 會期 延長을 해서 그 다음날에 하면 가능합니다.

○李亮漢 委員 ; 그런데 그것 말이지 걱정할 것 뭐 있어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는데요. 우리 行政調查權을 發動을 하면, 發動해 놓고 보고 싶은 데로 가면 되는 것이야, 어차피 計劃書가 나오고 할 것이니까.

行政調 查權 發動되고 난 뒤에 商業銀行을 가든지 財務局에 가서 보자 그리고, 안 보여주면 우리가 보름 기다렸다 보는 것이고, 밤새워서 보는 것이고, 그 때는. 지금 미리 가서 보는데, 發動은 되고 난 뒤에 計劃書 안냈다고 해서 書類 안 보여주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마음자세가 먼저……. 꼭 法을 지켜야 할 理由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는데. 무슨 法을 지킵니까? 우리 調查하겠다는 法인데. 안 보여주면 빠꾸해 오면 돼요, 보름간 쉬면 되는 것이고, 보여달라는데 왜 안 보여 주겠어요? 저는 그것 節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싶습니다. 그래서 時間이 없으면 빨리 보고 하면 되는 것이지, 실제 調查를. 뭐 그것을 法에 매여서 10月 15日 이후에 하고, 11월에 하고, 그럼 안하겠다는 얘기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면 차라리 관두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바로 붙으면 된다 이 것이지요.

○金洪奎 委員 ; 네,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委員長 文錫珍 ; 네, 運營의 妙를 살리도록 하지요.

行政事務調查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결론짓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同意를 하셨으니깐 일단은 行政事務調查에 대해서 可決을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郭順英 委員님이 發議하신 特委 調查에 대해서 여러분들 意見 있으면 意見 말씀해 주십시오.

○金洪奎 委員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運營委員會 幹事로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에 市金庫 問題를 가지고 特委를 構成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
까지도 제가 議長團하고 相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事業이다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 실제
로 지금 우리 議會에 보면 特委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래서 여기서 또 特委를 構成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特委가 남발된 것 같고, 調査委員會를 構成을 해서 調査를 하
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調査니
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다른 데
는 실질적으로 都市整備에는 安全點檢하는 것 하나가 構
成이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財務에서
는 지금 農水産物하고 市金庫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職員은
限定이 되어 있습니다, 補助職員은. 지금 저기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女職員,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럼 저 두 사람인데,
자, 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 農水産物都賣센터 調査計劃書
에 보면 분명히 저 두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제가 事務處長을 만나서, 議長을 만나고 事務處長을 만
나서 職員 한 사람만 좀 해 주시오 해도 안해 줍니다. 안해
주는 것이, 지금 都市整備에서도 사람 해 달라는 것도 못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해 달라고 하면 사람이……. 여기가 마비가 된
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각 常任委에 되어 있는 專門委員들이 해 줘야 된다
이 論理를 펴요. 그래 그것 결국 어떻게 싸우고 싸워서 한 사
람을 兼任發令을 받았습니까, 兼任發令을. 겨우 그 정도입니
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委員會가 지금 한 8名씩 이렇게 構成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調査委員會에 2·3名씩, 한두 명씩 빠지고 나면 불과 한 5·6名이 나가서……. 실제적인 行政業務는 지금 補助職員을 받아서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그런 立場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市金庫가 또 해서 과연 하다보면 정말 이 職員을 어떻게, 補助職員을 어떻게 支援을 받을 것인가? 이것 참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問題까지도 우리가 事前에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서 뒤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번에 事務處長에게 아주 떼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職員을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補助職員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兼任發令이라고 해서 한 사람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이냐? 아까 우리 金勝建 委員님이 얘기했듯이 암담합니다. 사실 아주 정말 제가 農水産物都賣센터를 가봤을 때는 여기가 바로 伏魔殿이다 하고 했는데, 이 伏魔殿을 어떤 式으로 파헤쳐서, 心證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것을 제대로, 그야말로 6個月後에는 本會議에서 완전한 마스터플랜을 갖다 내보여야 될 판입니다 참 암담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되어버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어버리면, 참 저는 이 農水産物都賣센터도 지금 사람 한 4名이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12名으로 해 놓았는데, 과연 또 市金庫調査委員會를 構成을 해서 날짜를 잡고 이러다보면 정말 人員 때문에 그렇고 補助職員도 그렇고 참 심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李亮漢 委員 ; 말씀 中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각자 委員들이 補助職員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꼭 議會에서 指定하는 사람만 데리고 갑니까?

○委員長 文錫珍 ; 그것은 運營의 妙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발런티어를, 그러니까 專門家인 발런티어를 參與시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議會活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될 理由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法的으로 保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中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運營을 해 나가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郭委員님.

○郭順英 委員 ; 방금 特委가 여섯 個가 構成이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지금 市金庫 問題가 제일 처음에 特委로 構成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여섯 個 特委 中에서 지금 舉論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小委員會 構成된 市金庫가 제일 많이 舉論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人員이나 이런 것은 방금 委員長님의 말씀대로 運營의 妙를 살려서 고용인이라도 되야돼요, 專門家를. 두고서 할 수 있는 그런 方案도 있고, 거기에는 그렇게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問題를 우물쭈물 하려면 아예 지금 그냥 포기를 해야 돼요. 하려면 야무지게 하고 안하려면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 意見 좀 말씀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 저도 현실적으로 行政調查權을 發動을 해서 特委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方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서 전적으로 郭順英 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에 同意하고요. 人力의 問題나 物理力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은 각 委員들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月 31日까지 契約이 滿了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提起를 하고 있고, 또 맨 처음에 이 問題를 提起했을 때도 상당히 이것이 쉽지 않을 것 이다라는 否定的인 見解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우리는 여기 까지 왔고, 상당히 일의 進陟도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올해 안에 委員들이 좀 집중적이고 확실하게 이 부분에 열심히 일을 한다면 契約을 延期하지 않더라도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절박하고 또 時間이 없고 시급한 問題이기 때문에 委員들이 각자 자기 事務室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와서 活動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專門家를 우리가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大學教授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보수로도 이런 活動을 같이 하려는 意思들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公認會計士들도 그런 役割을 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問題에 있어서는 特委를 構成하는데, 特委를 構成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선적으로 論議가 되어야 되지, 特委를 構成하는데 사람을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는 副次的인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文錫珍 ; 鄭水華 委員님 먼저 意見 말씀해 주십시오.

○鄭水華 委員 ; 지금 特委로 하느냐 그냥 委員會로 하느냐, 그것을 區分을 확실하게 해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혼돈이 되어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特委를 하게 되면 오픈이

되는 거예요, 전체로. 그렇지만 委員會로 해서 하면 우리 지금 農水産物行政調査委員會처럼 자체 내의 委員들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委員會로 할 것인가 特委로 크게 할 것인가 그것을…….

○金洪奎 委員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特委 問題는 실질적으로 本會議…….물론 運營委員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特委를 構成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다루어야 될 問題입니다. 사실은 特委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우리 常任委 所管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調査小委員會가 가장 합당하지 않느냐? 만약에 特委가 바통이 다른 데로 공히 넘어갔을 때에는 本會議에서 각 部署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構成이 될 이런 提起가 됩니다, 꼭 필요성을 갖는다라고 봤을 때는.

○盧載東 委員 ; 그럼 調査權 發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金勝建 委員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만약에 今年末까지 재계약이 된다면, 商業銀行이 되든 아니면 다른 市中銀行이 되든 간에 契約이 된다면 금년 12月 31日안으로 될텐데, 12月 31日 안에 되면 特委는 그 다음에는 意味가 없어요. 제가 보건대는 이성격상 이것은 정말로 行政事務調査의 성격에 맞는 것이지, 特委라는 것은 저희가……. 물론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따지면 할 말 없겠지만 特委라는 것이 一般的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성격은 저희가 市金庫 改善 代案을 提示하는 調査를 한다는 것이 目的인데, 이것이 과연 特委로 해서 저희가 4代 市議會에 계속 존속해야 되느냐? 그것은 제가 보기에 성격이 아닙니다…….

(「特委는 6個月마다 바뀌고……」하는 委員 있음)

바뀔 수도 있어요, 물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의 目標가 어떻게 하든지간에 市中金庫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면 그 성격상 제가 보기에 行政事務調査가 제일 맞기 때문에 行政事務調査…….

제가 아까 原則적으로 同意한다는 것도 特委의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일을 자꾸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러나 제가 아까 序頭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확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저희가 뒤를 봐서, 조금이라도 內實을 기하는 쪽으로 모든 議事決定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盧載東 委員 ; 우리 業務의 의욕도 좋은데 이것이 特委 構成을 해서 서울特別市議會에 委員會로 設置가 돼버리고, 또 그 特委에 소속되는 主要멤버들이 이 財務經濟委員會가 전부 다 간다라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고, 만약 그렇게 해서 일만 전부 다 벌여놓고 우리가 主動멤버에서 빠지고 이런다고 그러면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財務經濟委員會에 대한 불명예가 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의욕도 좋지만 우리 專門委員도 說明을 했으니까 일단 調査小委員會로 構成을 하고, 그 다음에 計劃書 꾸미는 것도 몇 사람이 압축해서 꾸미자 이것입니다. 꾸며서 계속 資料補完하고 이렇게 하면서 10月 臨時會에서 그 때 通過시키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질러서 좀 하자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끌고 나가시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相南 委員 ;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小委員會에서 이미 決定된 事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意見은 그만두고, 어제 行政調查權 發動에 대해서 서로 合意를 했기 때문에 行政調查權 發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좋겠고, 다음 일의 推進事項은 결국 小委員會에서 하는 일이나 行政調查委員會에서 하는 일이나 大同小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필드 워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가 나와서 調查하는 것을 同意해 준다면 사실 調查權 發動도 별 意味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調查權을 發動하게 되면 그만큼 대외적으로 무게가 실리고 부담감이 더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計劃書라든가 나중에 결과가 대외적으로 期待値에 어긋났을 때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왕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問題點도 파악이 됐고, 現況도 많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時期的으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달라붙으면 오래 갈 것 없습니다, 이것. 오래 갈 것 없고, 이것이 상당히 問題點이 많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行政調查權을 이번 會期에서 發動을 시키고, 구체적인 計劃書가 通過가 안되더라도 일단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하던 일을 그대로 推進하고, 나가서 調查하겠다 그러면 아까 李亮漢 委員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때 調查 그것을.우리를 받아주지 못하면 그럼 나중에 本會議 지나간 후에 오겠다 그러고, 거기서 그대로 우리한테 資料提出도 해 주고 다해 준다면, 받아주면 그대로 進行시켜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計劃을 만들어서 進行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 1個月이면 끝납니다, 1個月 이상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 行政調查

權 調査보다도 오히려 이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아까 梁敬淑 委員께서도 말씀하셨지만 擔當하는委員들께서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短時日 內에도 집중적으로 한다면 改善案까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우리도 行政調査權으로 얘기가 됐고 하니까 그것으로 우선 여기서 議論을 집약했으면 좋겠고, 本會議에서 行政調査權 發動에 대해서만 우리가 同意를 받는다면 調査 그 業務는 바로 進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期日도 우리가 計劃을 좀 면밀하게 짜서 빨리 進行시키면 결국 財務局하고 商業銀行 두 군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時日 內에 調査가 끝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亮漢 委員 ;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事務室 會計士 한 열 명 데리고 오면, 앉혀놓고 조지면 돼요, 그것 뭐 별 것 없어요, 사실은.

꼭 그러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굳이 그것 할……. 그러면 열 명 앉혀놓고 다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委員들 옆에 앉아서 시키는 거예요, 뭘 시키라고. 할 수 있다고, 그것 뭐 돈 안받고. 옆에 붙어서 委員들이 이것 보시오, 이것보시오, 당신 뭐 나옵니까? 뭐 나오면 두들겨주면 될 것 아니에요, 機械的으로. 완전히 딱 하나씩 붙여서,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이 지금 다른 먹고 살기 위해서……. 6萬원 보수면 無報酬……. 이것 名譽職 하다보니까 사람들 이상해져 버렸어요. 報酬職이고, 내 돈 버는 일이고, 우리 서울市를 위

해서 몇 천억원을 벌여준다는 생각을 하면 막 데리고 와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걱정 될 그렇게 해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委員長 文錫珍 ; 意見이 충분히 開陳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서로 엇갈리고 그러면 表決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意見 開陳이 됐으니깐, 꼭 필요해서 꼭 意見을 말씀하시겠다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行政事務調査에 대해서 여러분 意見을 물어서 可決하고 끝내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李廷義 委員님 마저 말씀하고…….

○李廷義 委員 ;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小委員長에게…….

(「그것은 行政調査를 贊成하시고 일단…….」하는 委員 있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수정안을 提示하려고 미리 말씀을, 背景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小委員會를 構成하고서 人力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을 하는데 효율성을 갖고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우리 小委員長에게 제가 疑問 提起를 합니다. 오늘도 本委員이……. 지난번에 利子率에 대해서, 利子率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왜 95年度에 利子가 더 낮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中途解止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그것을 提示를 했고, 또 했는데 우리 小委員長께서 없다, 내가 분명히 본인에게 물어봤고 그것을 提示했고, 오늘도……. 내가 그래서 94年度……. 어제 盧載東 委員님께서 얘기해서 그럼 94年度부터 95年度까지 解止된 부분을 提示하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委員長께서 없다, 지금 우리 委員會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市金庫나 서울市를 위해서 일하는지 난 도대체 疑問을 提起합니다. 그래서…….

○小委員長 金相男 ; 저도 할 얘기 있어요.

그런데 …….

○李廷義 委員 ; 아니, 제 말 좀…….

○小委員長 金相男 ;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랬고, 아까 財務局長도 94年度, 95年度는 解止가 없다고……. 전부 다 調査를 했어요, 저도.

(「停會를 要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전부 다 調査를 해 보고 하는 얘기…….

○李廷義 委員 ; 좀 조용히 해 보세요. 그래서…….

○小委員長 金相男 ; 뭘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94年度하고 95年度는 中途解止가 없다고요, 그전에는 있었어요.

○李廷義 委員 ; 아니, 조용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停會 5分만…….」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文錫珍 ; 5분간 停會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廷義 委員 ; 네, 停會하고 얘기합시다.

○委員長 文錫珍 ;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9時 47分 會議中止)

(19時 59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錫珍 ; 續開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오늘 會議가 길어서 停會, 續開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다 우리 議政活動을 잘 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理解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아까 얘기가 進行된 것 中에서 우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行政事務調査에 대해서는 서로 意見의 일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正式으로 動議를 해 주십시오

(「네」하는 委員 있음)

李亮漢 委員님, 行政事務調査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市 金庫 業務 全般에 대한 行政事務調査를 하자라고 하는 動議를 해 주셨습니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再請하십니까?

(「네」하는 委員 있음)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市金庫 業務 全般에 대해서 行政事務調査를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案件에 대해서 決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그리고 아까 얘기된 事項들 가운데 特委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얘기하다가 좀 論爭이 있어서 停會를 宣布했었는데, 지금 서로 停會되고 나서 意見 다시 調整하신 內容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郭順英 委員님이 撤回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하는 委員 있음)

○郭順英 委員 ; 撤回가 있는 터라 제가……. 제 動議案에 贊成案이 梁委員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撤回가 되어야 돼요, 撤回가 되려면. 그런데 이 얘기는 이미 發議

가 되어서 成立이 됐다고 봅니다, 案件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 철회합니다 하면 아까 저에게 同意한 분의 意思입니다, 그것이.

○委員長 文錫珍 ; 그러면 梁委員이 아까 再請까지 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動議하시고, 再請하신 것이 됐었습니까?

○金勝建 委員 ; 아니, 아까 梁敬淑 委員님 말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行政事務調査를 거쳐서 特委로 發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式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速記錄에 남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아까 動議가 成立……. 動議가 成立이 됐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表決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또 저희는 조금 전에 行政事務國查 이것을 決議를 했는데, 이미 議決을 했는데, 이것도 또 좀 약간 問題가 생깁니다.

○委員長 文錫珍 ; 特委는 行政事務調査하고 또 별개입니다…….

○金勝建 委員 ;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委員長 文錫珍 ; 特委를 하더라도 行政事務調査 그것도 별개니까, 그런데…….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表決 같은 것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郭順英 委員 ; 그러면 제가 撤回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委員長 文錫珍 ; 네, 감사합니다. 저기…….

○郭順英 委員 ; 이 特委를 構成하는데 꼭 우리 財務經濟委員會에서, 여기서 表決에 응할 이런 理由는 없습니다. 저는 本議會 다른 委員하고도 얼마든지 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저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發言을 取消하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 저희가 特委를 構成하자 한다고 해서 바로

特委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그러나 特委를 構成해야 된다고 하는 정신은 분명히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行政事務調査에 대한 것들이 本會議에 決議되는 대로 行政事務調査, 그러니까 市金庫行政事務調査委員會를 構成하도록 하겠고요, 그러한 것에 따라서 우리 市金庫制度改善 小委員會에 대한 活動을 評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行政事務調査를 받는데 있어서 지금 小委員會가 현재 있는데, 小委員會 活動을 그러면 이것으로써 마치시는 것인지 아니면 小委員會에게 行政事務調査權을, 일단 行政事務調査는 저희들 財務經濟委員會로 넘어오게 됩니다, 常任委 쪽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問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整理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梁敬淑 委員 ; 行政調査權을 發動을 한다 그래도 그 委任을 財務經濟委員會에 正式으로 委任事項으로 決議를 받아야지만 財務經濟委員會로 넘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財務經濟委員會로 案을 낼 때 委任을 받는 案을 내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小委員會가 지금까지 活動을 했는데, 사실 小委員會가 活動을 하고 行政調査權을 發動을 하려고 하면 小委員會에 대한 活動報告書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活動報告書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小委員會 委員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小委員會 活動을 그동안에 經過報告나 또 活動報告書를 내는 부분에 좀 같이 하겠다는 意志를 表明하면서, 市金庫制度改善을 위한 行政調査委員會가 構成이 되면 小委員會랑은 사실 같은 정신을 이어받지만 별개일 수도 있고, 小委員會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財務經濟委員會로 委任을 받아서 지금 현재 小委員會 活動을 하고 있는 분들을

포함하고 나머지 行政調查委員會 委員長이나 委員을 더 追加하는 問題나 이런 부분은 委員長한테 委任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勝建 委員 ; 거기에 대해서 저도 意見 있습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本會議 通過가 되고, 議決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財務經濟委로 委任한다는 決定이 있어야 된다는 前提條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前提條件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여태까지 다루었던 小委員會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構成을. 다만, 人員 增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人員 增員에 대한 規定들은 감안을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가 앞으로 한 1年 3個月 정도 더 같이 常任委 해야 되는데, 그 後半期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같은 사안을 가지고 構成된 것들에 대해서 補強 增員하는 것은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러나 이미 한번 決定된 것들을 같은 우리 委員會에서 하는 것이, 같은 事案이 되는 것을 다시 만약에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됐던 것에서 그냥 가고 다만, 增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하고 또 該當 小委에서 그것은 決定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梁敬淑 委員 ; 일단 제가 動議案을 냈기 때문에 그 動議案에 대한 再請이나 三請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 動議를 받기 전에, 지금 行政事務調查委,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決議만 되어 있지 本會議에서 決議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것이 有效한 段階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얘기하는 것은 向後에 대

한 問題이고 지금의 問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動議를 받기 이전에 일단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小委員會 活動이 여기서 中止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行政事務調査에 대한 決議가 다 나오고 나서 그 때 가서 論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정신을 살려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리고 行政事務調査에 대한 決議가 되면 그 때는 어차피……. 사실 小委員會도 우리 委員會 傘下에 있는 小委員會이고, 또 行政事務調査가 우리한테로 넘어오도록 計劃을 세우지만 우리한테 넘어오면, 그 때 財務經濟委員會로 넘어오게 되니까 財務經濟委員長의 權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다시 한 번 檢討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金洪奎 委員님, 아직 제가 말씀만 드린 것이고요, 좀 意見 더 듣고 動議를…….

○梁敬淑 委員 ;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 案을 냈던 것은 常任委員會가 오늘로 이번 會期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常任委 모임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行政調査權이 發動이 되어서 調査委員會를 構成한다고 한다면 다시 또 그것 構成을 위해서 다시 만나야 되는 것보다는 委任을해서 活動을 그냥 연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提案이었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 基本的으로 提案하지 않아도 저한테 權限이 있는 것 아닙니까?

○梁敬淑委員 ; 그것은 그렇지요.

○委員長 文錫珍 ; 金洪奎 委員님 말씀해 주십시오.

○金洪奎 委員 ; 방금 委員長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委員長님한테 權限이 있는 것입니다. 權限이라면 뭐하

지만 그래도 우리 財務經濟委員會 소속의 委員長님이시기 때문에 委員長님의 役割이 또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梁敬淑 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行政事務調查委員會하고 일반적으로 小委員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人員이 그대로 계속 存在하고 계속 維持한다라는 것은 理解가 갑니다. 그러나 小委員會 성격하고 行政事務調查委員會 성격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다 더 委員長님께서 調查委員會에는 人員 構成도 그렇고 지금까지 小委員會에서 해왔던 그 일을 토대로 해서 그분들의 意思도 들어보고 해서 委員長님께서 再構成을 해서, 정말 行政事務調查委員會를 할 때는 本會議에서 通過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本會議에서 그 끝마무리도 제대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問題는 좀 보다 더 深思熟考해서,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어떤 경우 등 수고들 하셨습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제대로 이렇게 좀 해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意志가 담긴 분들만이 제대로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의 주문의 생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文錫珍 ; 다른 意見 없으시면 閉會를 同意해 주시요.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委員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第80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第2次 財務經濟委員會를 모두 마치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公社 現場訪問이 9月 26日 午前 10時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20時 312分 散會)

○出席委員

文錫珍 鄭水華 李亮漢 鄭順英
金廣洵 金信造 金洪奎 白南善
梁敬淑 李廷義 黃仁明 金相南
金勝建 盧載東 朴南植 金勝子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財務局長 權五虎
會計課長 林綵瑾
稅務指導課長 金煥吉